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4

VOL.238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5 부산음악대축제 I - IV BUSAN MUSIC FESTIVAL

예술총감독 | 김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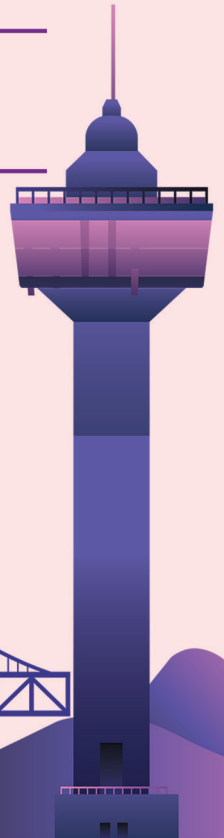
05. 13. [화] 부산음악대축제 I **신인음악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 14. [수] 부산음악대축제 II **실내악의 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5. 15. [목] 부산음악대축제 III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 Pianos 70 Pianists)

05. 16. [금] 부산음악대축제 IV **오페라 갈라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사랑의 묘약 | 카르멘)

2025. 05. 13.[화] - 16.[금] 19:30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025년 3월 - 11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주최 |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 | 051)631-1377 www.bsart.or.kr

- 3. 5. (수) 국악퍼포머 청청 [UP이아 청청]
- 3. 26. (수) 춤패 배김새 [2025 을사년 춤패 배김새 새봄맞이 출판]
- 4. 9. (수) NS Band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
- 4. 30. (수) 오페리움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 6. 11. (수) 부산시민원드오케스트라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
- 6. 16. (월) ~ 6. 22. (일) 시선회 [꿈은 이루어진다]
- 6. 25. (수) 부산아이디발레단 [Essential]
- 6. 30. (월) ~ 7. 6. (일)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 [BE CRAFT!]
- 7. 28. (월) ~ 8. 3. (일) 홍민수 도예전 [법고창신]
- 7. 30. (수) 아띠클래식 [아띠클래식 미니 콘서트]
- 8. 25. (월) ~ 8. 31. (일) 부산남사회 포토클럽 [부산 사계의 미학]
- 8. 27. (수) 극단 우릿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복']
- 9. 8. (월) ~ 9. 14. (일) 부산문인협회 [시화전]
- 9. 22. (월) ~ 9. 28. (일)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 9. 24. (수)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
- 10. 29. (수) 영포레컴퍼니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
- 11. 26. (수) 이바디예술단 [문화의 교차로에 선 '술가락 젓가락']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APRIL

4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오전)부산미술협회 송혜수 미술상 심사 051)632-2400	2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야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점심버스킹	3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4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5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산지회 제8회 용두산가요제 본선 오후1시 051)949-2468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6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산지회 제8회 용두산가요제 본선 오후1시 051)949-2468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7 정말란 개인전_태양아래서 010-2823-3490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8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9 문화가 있는 날_NS밴드 <국제미디어 NS BAND> 오후7시 051)631-1377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10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1 (오전오후야간) 도서출판 오색예술 저자와 독자의 만남을 통한 강의 010-8535-2007	12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진강좌 오후2시 051)631-4111
13 2025부산관악협회 주최 제7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오전9시 010-6886-5896	14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5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6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1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8 (오후)부산사진작가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051)631-4111	19 부산문인협회 제3회 문인의 날 오후2시 051)632-5888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20 부산연극협회 부산연극제 폐막식 및 시상식 오후5시 051)645-3759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21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2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23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24 춤과사람 Dance&Soul 한중교류 오후7시, 010-2482-3041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5 춤과사람 Dance&Soul 한중교류 오후7시 010-2482-3041 삼여수목회전 010-3862-1222	26 부산문인협회 제39회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시 낭송대회 오후2시, 051)632-5888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010-4577-7386
27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오후2시 051)631-1377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010-4577-7386	28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010-4577-7386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9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010-4577-7386	30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원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오후7시 051)631-1377 김경순 개인전 씨줄과 날줄의 외출 010-4577-7386			



ART BUSAN MONTHLY VOL.238

2025 APRI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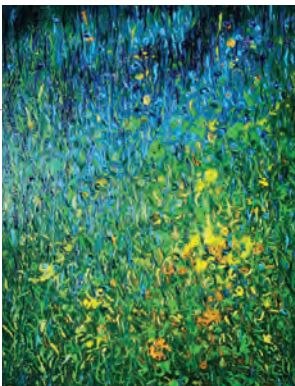
CONTENTS

권두칼럼

08 문화가 꽃피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_ 송상조

예서제서

- 10 2025 걸다가 만나는 버스킹
- 1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국악퍼포머 청청 <UP이야 청청> _ 박준영
- 14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18 2025년 제1차 시민문예강좌 - 작고문인 재조명
- 20 2025 BAMA 제14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 22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24 제68회 군록회 정기전
- 26 2025 부산여류전
- 28 제47회 부산수채화협회 정기전
- 30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 전통에 대한 경의Ⅷ - 화악樂
- 32 K-art, Busan Minhwa 오콜랜드 특별전
- 33 제1회 부산한일예술전시회
- 34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유리·빛과 불의 연금술
- 36 제4회 참빛포토클럽회원전
- 37 2025 부산유니온발레단 창작발레 - <보은의 꽃>



花路散步 _ Oil on canvas, 50호F

표지 _ 류시호

- 현) 부산문화방송 PD
- 2022 相想2022(BNK부산은행갤러리)
- 2019 相想2019(금오공대갤러리 기획초대전)
- 2018 부산대학교 대학문화기획전
- 2018 相想2018(더베이101갤러리)
- 2013~2018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



포토에세이

38 임한리 소나무 _ 여명수

時雨일기

42 말날 _ 문경희

예인탐방

46 사진가 이봉재 _ 박준영

예술가열전 231

48 꽃예술작가 최정선 _ 조현숙

손으로 쓴 문학

52 나무의 응시, 풀의 주름 _ 송명화

들어다보기

54 음악/ 팬텀스타워즈 -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클래식 음악에 한 발짝 _ 김윤선

56 미술/ 박주호 작가의 'Awareness' 展 _ 권오혁

58 음악/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I - 무라카미 하루키 _ 김재준

기획연재

60 건축과 서예X - 오류에서 고증으로 : 현판 변천사, 부산진성 _ 이현주

64 부산시민의 '꿈', 가덕신공항에 멋진 이름 붙여졌으면 _ 심수화

열린마당

68 문화유산 보존·복원 이야기 _ 정수희

72 생계 위기 내몰리는 부산예술인을 생각하다 _ 정혜주

74 예총·전사·공연 뉴스

79 신간 안내

8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4월 통권 238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3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충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글 _ 송상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부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색있는 음식, 도시문화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 영화·영상 분야를 비롯한 예술문화를 꽃피운, 세계인에게 인정받은 매력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과제들이 아니다.

인구소멸, 지역 간 문화 격차, 그리고 저출생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작업 환경 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예술인들은 여전히 낮은 소득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는 시민들의 예술문화 활동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예술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부산 시민의 예술문화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2024년에 발간한 '부산 시민 문화예술 활동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예술문화 활동 참여도는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되었다.

한편, 부산시의 예술인 실태조사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부산문화재단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예술인의 평균 연 소득은 1,479만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창작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비율은 낮고, 예술인들의 45.4%가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로 나타나,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예술인들의 예술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의 활동 지원 예산을 약 70억 원에서 25년도에는 85억 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하였고,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전자금 등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산시에서 23년부터 시작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마켓을 통하여 창작물의 홍보와 유통지원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며, 예술인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지원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과 '점심 버스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이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은 이제 단순히 예술문화의 소비자와 창조자로 역할을 구분 짓지 않고, 문화의 창조자로서 시민 모두가 예술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진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술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고, 창작과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 예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같은 하이엔드급 공연시설이 올해 6월을 시작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 부산은 예술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들에게 세계 수준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화정책은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초에 맞춰 부산시는 2020년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

민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산시의 이러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지역의 예술문화 활동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예술은 단순한 창작활동이 아닌 지역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산이 예술문화의 허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더 많은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러한 부산의 예술문화 비전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예술문화 기반의 강화는 물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복지와 창작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는 예술문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는 도시이자,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가 꽃피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였다. 그 여정 속에 예술인과 부산 시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4월 ~ 9월 수요일 오후 12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4월 끝단지 버스킹 4. 2. / 9.(수) 오후 12시

끝단지 | 메인보컬 정혜경, 보컬/랩 김태수 박다니엘

[끝단지]는 보컬 위주의 발라드 공연과 랩이 가미된 90년대 댄스 음악 등 개성 있는 음색을 가진 세 멤버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다양한 연령대와 남녀노소 모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을 펼쳐 보인다.

부산의 그림자 4. 16. / 23.(수) 오후 12시

더 부산 혼 사운드 | 호른 김영민 백나영 신예은 오원택

[더 부산 혼 사운드]는 2016년 창단되어 클래식, 춤곡, 영화음악 등 호른만의 편곡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한 단체이다. 호른 4중주의 버스킹 공연은 클래식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팝의 경쾌함을 혼합하여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5월 미르소리와 함께하는 국악 스넥타임 5. 14.(수) 오후 12시

미르소리 | 판소리 최인화, 가야금 전주현, 거문고 김채영, 해금 박재하

[미르소리]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판소리로 구성된 창작 국악그룹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국악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트로트, OST, 창작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국악과 융합해 새로운 국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햇살 아래 즐거운 점심, 음악과 함께 5. 21. / 28.(수) 오후 12시

헤르츠앙상블 | 보컬 이주현 정지윤 박소정 김민지

2018년 4인으로 출발한 [헤르츠앙상블]은 약 20여 명의 성악가와 보컬 공연자가 함께 하는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드는 다양한 곡들로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6월 뮤지컬 갈라쇼 〈Welcome 2025〉 6. 4. / 11.(수) 오후 12시

세레나데 아트컴퍼니 | 대표/배우 허석, 배우 고혜정 송화정

[세레나데 아트컴퍼니]는 2014년도부터 부산 경남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와 무대에 꾸준히 초청받아 활동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단체이다. 희망찬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 넘버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Classical 사랑고백 6. 18.(수) 오후 12시

베니앤 | 소프라노 박나래 이수정, 테너 서상민, 바리톤 김우진

[베니앤]은 시립합창단원 및 유학파 프로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팝페라&오페라 공연단체이다. 클래식 성악공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들을 엄선하여 성악가들의 울림있는 목소리를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전달한다.

7월 B.O.E's Playlist 7. 2.(수) 오후 12시

부산오페라앙상블 | 바이올린 심해수 왕현지, 비올라 이현지,

첼로 이석민, 신디 박다은

[부산오페라앙상블]은 음악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종합예술무대를 선보이는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단체이다. 공연은 K-pop으로 구성해 힐링의 감성과 희로애락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현악기와 신디의 선율로 감상할 수 있다.

위드유 디즈니 뮤지컬 버스킹 7. 16.(수) 오후 12시

위드유싱어즈 | 보컬 김하민 최재현

[위드유싱어즈]는 뮤지컬을 기반으로 디즈니, 가요 등 풍성한 사운드를 관객에게 들려주는 단체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와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요 및 트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8월 감동과 소통이 있는 음악 산책 8. 6.(수) 오후 12시

러브어스앙상블 | 전자첼로 이소연, 전자바이올린 김관후

[러브어스앙상블]은 탄탄한 연주력을 기반으로 클래식 및 전자 음악과 재즈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는 단체이다. 한낮의 산책과 같은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관객과 소통한다.

일상속에서의 잠깐의 '탈피' : 썸"표 8. 20. / 27.(수) 오후 12시

탈피 | 보컬 김아름, 타악 김인균, 피리 박수빈, 가야금/건반 서규범, 해금 이선영

[탈피]는 2022년 창단해 각자의 색깔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바쁜 하루 중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OST, 가요, 창작곡까지 다양하게 들려준다.

9월 비페 뵈데이(Day) 9. 3. / 10.(수) 오후 12시

비페 | 트럼펫 김경민 김민정 장금정 주예준 한윤승, 드럼 유현승

[비페]는 부산 청년 트럼페터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트럼펫 오중주 단체이다. 누구나 알고 들어봤을 한국 가요를 [비페]만의 편곡으로 연주하여 특별한 감성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비페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국악퍼포머 청청 <UP이야 청청>

2025. 3. 5.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부산예술회관이 기획한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의 첫 무대가 3월 5일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연은 [국악 퍼포머 청청]이 선보인 <UP이야 청청>으로,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선한 무대를 보여주며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공연장 입구에 있는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게시판에는 관객이 청청에게 던지는 다양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었다. 청청의 팀명으로 짓는 2행시, 멤버들의 애인 유무, 청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한 질문까지.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청청은 어느 공연단과는 다르게 객석 가장 뒤에서 등장하며 무대를 시작했다.

이름처럼 상·하의를 청청색으로 맞춘 청청의 무대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전통 국악 공연에서 한복을 떠올리기 쉬운 고정관념을 깨고, 트렌디한 의상으로 등장한 그들의 모습은 색다른 시각적 재미를 선사했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청청은 객석을 가로지르며 연주를 이어갔고, 오프닝 무대는 영화 <미션임파서블>의 테마곡을 국악으로 편곡한 연주였다. 익숙한 멜로디를 국악기의 독창적인 음색으로 풀어내며 신선한 감각을 더했다. 각기 다른 악기가 하나의 음악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청청의 탄탄한 합을 증명했다. 이후에도 청청은 전통 사물놀이를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흥을 북돋았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군밤타령」, 「신옹헤야」 & 「꽤지나 칭칭 나네」 등 전통 민요를 청청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무대가 이어졌고, 특히 관객 참여를 유도한 「신옹헤야」에서는 청청의 진가가 빛을 발했다. 관객이 참여해서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무대였다. 경기민요 소리꾼 최예림의 구성진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자, 객석 곳곳에서 “옹헤야”를 외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능수능란한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청청의 멤버들(이현서 이겨레 이충인 이창효 황지원 최예림)은 자연스럽게 관객을 몰입시켰고,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연출됐다. 뜨거운 환호 속에서 청청은 잠시 숨을 돌리며 앞서 받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에도 진심인 팀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빠른 템포와 정밀한 리듬이 돋보이는 <장구합주 다드리>가 이어졌다. 네 대의 장구가 각기 다른 리듬을 주고받으며 화합을 이루는 연주는 공연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어 「상사화」, 「보랏빛 향기」, 「미인」과 같은 대중가요를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는 또 다른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예정된 마지막 무대 「아름다운 나라」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박수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청청은 앙코르 무대를 열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청청은’ ‘생기가 있어 맑고 푸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예술을 공유하고 근심과 걱정을 미소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청청의 밝고 명랑한 기운이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본다.

글_박준영



와글 와글 예술파밍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The 39th Busan Youth Arts Festival

2025. 4. 26.~ 5. 24.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의 주제는 '와글와글 예술파밍'이다. 파밍(Farming)이란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어나가는 행위로, 반복적인 일련의 행동이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매년 개최하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꽃 차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져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으로 '예술파밍'을 이루는 행사이다. 올해도 공연·전시·체험 관련 다채로운 창작활동으로 예술적 경험과 재능을 차곡차곡 쌓아 레벨업하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기대가 모인다.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열정파밍, 꿈을파밍, 예술파밍' 체험존은 아이템을 가득 모을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청소년의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할 예정이다.

개막식 4. 27.(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와글와글 예술파밍' 개최를 축하하는 개막식이 오는 27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MC 제해창의 진행으로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2024 청소년 가요제 가요 부문 대상을 받은 도유민 학생과 2024 청소년 가요제 댄스 부문 대상을 받은 팀 [글로워], [스텝스], [드림아이 어린이 응원단]의 무대가 마련돼 있다. 그리고 화려한 레이저퍼포먼스와 부산예고 성악전공 학생 3명이 함께해 예술제의 시작을 알린다.

청소년건축상상마당 5. 1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및 회의실

부산건축가회(회장 김두진) 051)241-4011

21세기 건축문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차세대 건축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건축에 대한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상상마당의 주제는 '부산의 상징적인 건축물, 상상의 오브제로 다시 태어나다'로, 박은정 건축가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모형 제작을 통해 건축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증진시

키고, 건축문화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조성과 감수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 최우수상(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 시상식도 이뤄질 예정이다.

청소년국악제 5. 17.(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 051)644-5211

우리 국악계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피어오르다, 솟아오르다, 날아오르다’ 총 세 가지 파트로 준비되어 있다. 박시완(채상선반설장구), 박단아, 김형준, 신이나 등 수준 높은 기량을 갖춘 신인 국악인들의 경연대회를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산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국악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 예술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확대한다.

청소년무용예술제 5. 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무용협회(회장 남선주) 051)632-5116

무용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로, 청소년들이 민족적 주체성을 갖고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자발적인 창작 무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용제 응모 부문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사회무용으로, 부산 시 초·중고 무용전공학생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본행사는 청소년 예술교육 현장 실습의 장으로 무용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부산지역 예술문화의 미래 주역을 키워내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시낭송대회 5. 17.(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혜숙) 051)632-5888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에게 문예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심성 개발과 정서 함양을 선양하는 행사이다.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 2명, 금상 1명, 은상 2명을 포함해 총 23개의 상장이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본 행사를 통해 고운 심성과 아름다운 예절을 길러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된다. 시 낭송의 아름다운 울림이 마음에 맑고 고운 빛깔을 입히는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문학인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한다.

학생그림공모전 5. 19.(월) ~ 24.(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 051)632-2400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성 표현과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청소년 예술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응모 부문으로는 수채화, 한국화(수묵·채색화), 파스텔화, 판화, 이미



2024 학생사진공모전



2024 부산청소년무용예술제

지 디자인(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서예, 문인화 등이 있다. 참가 가능 인원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혔다.

학생사진공모전 5. 7.(수) ~ 10.(토)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

부산사진협회(회장 강종관) 051)631-4111

청소년 사진 활동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사진예술 감각 계발을 돕는 행사이다. 사진 창작활동 요령도 지원하고 있다. 응모 자격은 부산 소재 초중고 재학생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미발표 작품에 한해서 출품 가능하다. 학생들이 건전한 문화시민의 소양을 기르도록 동기부여를 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부산 내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청소년예술어울마당 5. 9.(금) ~ 11.(일) 만덕도서관 야외공연장, 다솜아트홀

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 051)645-3759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돕는 행사이다. 공연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예술 체험을 선사해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공연예술로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부산 청소년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2025청소년K-POP페스티벌 5. 24.(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연예예술인협회(회장 안규성) 051)646-7343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젊고 발랄한 에너지를 양껏 발산할 수 있도록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가요는 장르 불문, 댄스는 5분 이내의 힙합, 브레이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룰 예정이다. 경연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



다. 학교에서 제한되었던 에너지를 표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학교 밖 공동체 생활 체험을 통해 부산 청소년 간의 연대감을 고취한다.

부산청소년음악회 5. 20.(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 051)634-1295

청소년들에게 음악회 감상 기회를 마련해 클래식 공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연주 체험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서 무대와 관객이라는 직접 체험을 통하여 음악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거문고, 플루트, 바순 등의 다양한 솔로 악기와 앙상블, [유코청소년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주를 위한 무대 선사로 부산 음악계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5. 24.(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회장 최정애) 051)612-2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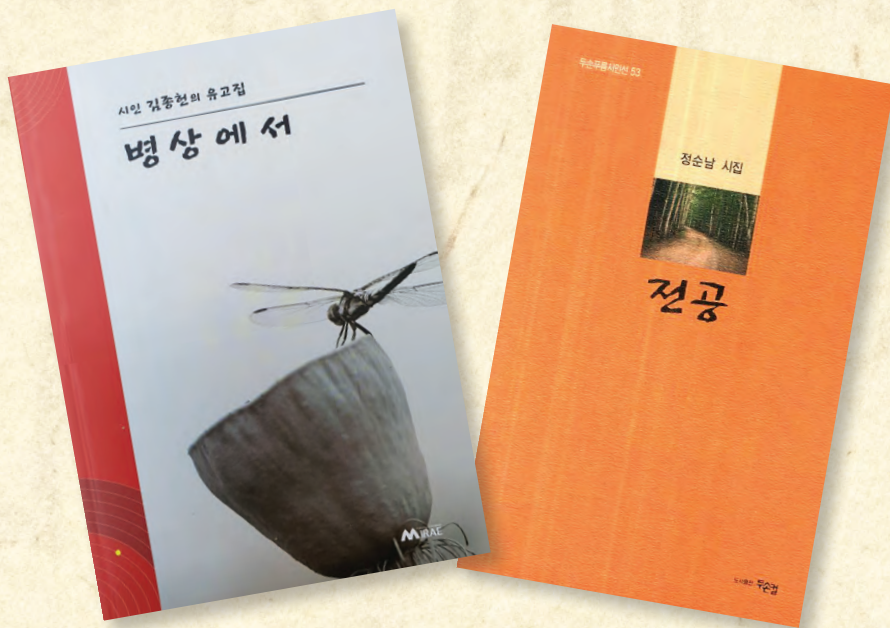
꽃을 소재로 하여 청소년들이 잠재된 재능을 스스로 발견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며, 감성 표현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각양각색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꽃다발을 만날 수 있다.

부산청소년세계차문화예술제 4. 27.(일)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부산차문화진흥원(회장 이미자) 051)809-1551

각종 솜품의 범람으로 빠른 속도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다도체험과 다도교육을 통해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도체험은 찻자리 시연을 보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차 마시는 법을 제대로 익히고, 한국의 전통적인 찻자리 기본 예절을 익히게 한다. 그리고 다도교육은 우리나라 차를 제대로 우리는 법, 다구 사용법 등을 통해 인내심과 예절, 예의를 학습하게 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2025년 제1차 시민문예강좌 작고문인 재조명

2025. 3. 21.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혜숙)의 2025년 제1차 시민문예강좌 '작고문인 재조명'이 3월 2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문학평론가 박미정의 강연으로 '고립의 고독과 생명의 부활의식'을 써 내려간 시인 김중현과 '고독으로 시의 여로를 담담하게 드러낸' 시인 정순남을 재조명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김중현 시인(1966~2022)은 경남대학교 전 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창신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2006년 계간지 『뿌리』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해 15년 만에 첫 시집 『외줄타기』를 출간했다. 시와 사진이 병치된 시집은 센티한 서정으로 존재의 시원을 지향하는 사고와 감정을 절제하고 세밀한 대상을 드러내는 이미지 변용의 기법으

로 존재의 문제에 의미를 투사하는 두 양상을 보인다. 박미정 강사의 의하면, 『외줄타기』는 '침묵, 눈물, 바람, 절망, 강물, 외로움, 슬픔 등을 함께하거나 견뎌냄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유한한 생명의 조건을 외줄타기로 견뎌내는 것에 익숙한 실존의 자의식'으로 설명된다.

시인은 정신 에너지를 '고립'으로부터 얻으며, 인간 생활 속에서 부침하는 고뇌와 갈등을 변용함으로써 아름다운 시의 지평을 개척해 나갔다.

떠난 김중현 시인을 다시 만나는 장으로 꺼내든 유고시집 『병상에서』는 시집 서문에 담긴 아내 김화영의 글을 소개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또 보편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명료한 목소

리로 선명하게 그려낸 점 등을 주목했다.

「잠이 오지 않는 밤」과 「새벽 세 시의 사자 한 마리」는 암담한 현실에 처한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시간과 공간을 의미화하는 소리'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의 『병상에서』는 병상의 고통을 이겨내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만큼 병상의 현실에 진실하고 정교하다는 평을 더했다.

정순남 시인(1935~2016)은 경남 통영에서 출생했다. 박미정 강사는 시인과 동향으로 맺어진 인연을 언급하며 '글의 바탕이 되는 신앙심과 삶을 관조하는 여유와 겸허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의 의식'에 존경심을 표했다. 예순이 되어 서야 시의 길에 들어선 정순남 시인은 등단할 때 이미 시집을 한 권 묶어낼 정도로 그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이 시였음을 증명했다. 고백서인 「나의 하루가 여기」에서는 '시의 길을 단순한 방편으로서 택한 것이 아니라 삶의 길로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시인에게 고독이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쫓아오는 그림자"이며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고독은 삶의 의지로 형상화되고 오히려 긍정적인 주제 의식을 감지할 수 있게 하며 시인의 세계관으로 확대된다.

'삶의 방향성을 고독을 통해 찾아낸 과정은 내 손 가슴에 모아 시련과 고통을 그대 앞에 풀어놓는 모습으로 '기다림'으로 고독한 자아의 모습을 표상'하고, 영혼이라는 한결같은 흐름으로 고백과 염원이 깔린 '신앙생활의 일상화'에 스며든 고독'의 발견이다. 생전에 가톨릭 신앙생활을 일상화한 정순남 시인에게 '고독의 미의식을 삶의 의미로 삼'는 과정은 숭고하고 절실한 기도와 같은 「막달레나의 기도」를 통해 신앙의 흡입력과 신앙고백으로 설명했다.

'서정 속에서 고독의 본질을 체득하다'에서는 시인의 조용함을 개인의 슬픔과 신앙적 세계에서 묵상으로 정화된 존재의 본질을 대면케 하는 것으로 말하며, '시를 쓰는 일이란'의 연한 기상이 현현되면서 고뇌의 흔적이 현실에 노정되고 있

는 것이라 정의했다. 시인이 인생론적 성찰을 잠언으로 표현한 작품은 은유와 상징, 압축의 단단한 알곡으로 차 있고,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직언의 기법을 특징으로 꼽으며 '시를 탐구하려는 지적 노력이 절실하게 표출되어 시를 쓰는 것 자체가 기도이자 위안이며, 성스러움까지 갖게 한다'고 조명했다.

정순남 시인은 『한글문학』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부산여성문학인협회 자문위원, 새부산시인협회 부회장, 부산사하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표 시집으로는 『가을산은 만산』(1994.6) 『영혼에 흐르는 하얀 빛』(1995.11) 『內心에 흐르는 미세함』(2001.7) 『가을걷이』(2005.5) 『전공』(2013.3) 5권이 있다.

2025년 시민문예강좌는 부산에서 활동하다 돌아가신 작고문인들의 업적과 문단에 미친 영향 등 작가의 문학관을 일반 시민과 기성 문인들에게 알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총 네 차례로 기획됐으며, 2차는 6월 20일에 작고문인 안귀순 정경, 3차는 9월 19일에 작고문인 고두동 서재수, 4차는 12월 19일에 작고문인 김중하 양병식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_051)632-5888 / 편집실



BAMA 2025

제14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2025. 4. 3. ~ 6. 부산벡스코 제1전시장

(사)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는 2025 BAMA '제14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이하 BAMA)'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15개 해외 갤러리를 비롯해 총 132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며 4,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BAMA는 'WITH, 지속 가능한'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과 환경,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아시아 아트페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25 BAMA는 본 행사에 앞서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부산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올해 주목

할 작품들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프리뷰 전시를 진행한다. 프리뷰에서는 40여 개의 갤러리가 선별한 회화, 조각, 판화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공개하고 컬렉터와 대중을 위한 작품 구매 기회도 제공한다. 프리뷰는 본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전시로 더 많은 사람이 현대미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전시에서는 4가지 특별전이 진행된다.

WITH, BADA(위드바다: 뮤지엄원 특별전) - 디지털 아트와 AI의 융합 섹션에서는 뮤지엄 원의 대규모 디지털 아트를 통해 AI가 예술의 개념과 제작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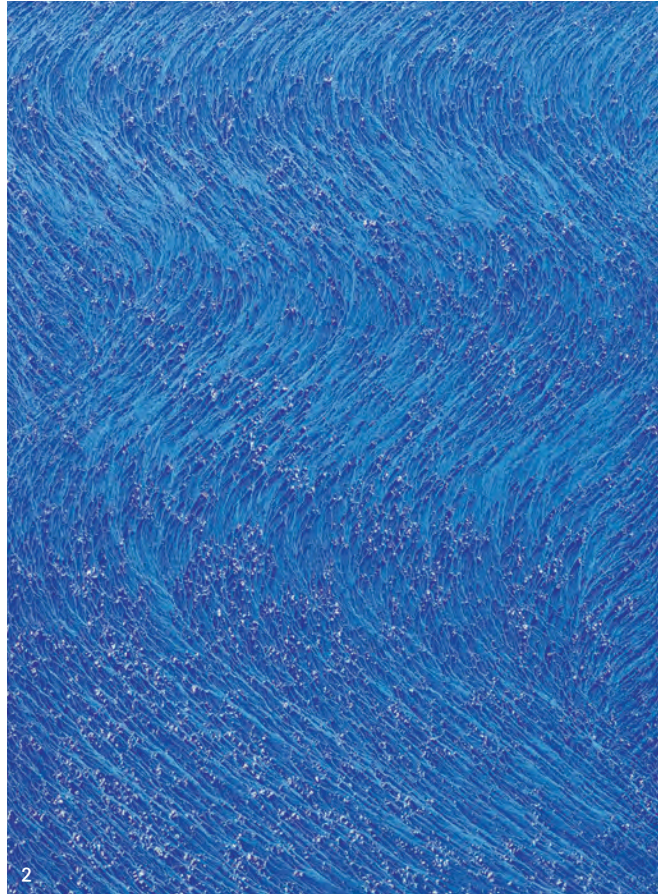
20s30s Focus On(2030 포커스온 특별전) - 신진 작가 인큐베이팅
에서는 2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16명을 선정해 황영록 께나는 김우솔 김현경 민보라 김보민 김지호 정혜민 김이린 김지연 유지희 김세현 이진구 방인균 도근기 최세윤의 동시대적 감각과 실험적인 조형 언어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Young Frontier Special X(영프론티어 특별전) - 예비작가의 첫걸음
섹션은 지난해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권 미술대학을 졸업한 신진작가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디그리쇼에서 발굴한 6명의 신진 작가 김가희 김민기 김진재 송예원 신동기 이루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WITH, ART(위드아트: 조각 특별전) - 신구 조각의 조화는 자연
의 물성과 현대적 조형 기법이 어우러진 작품들로 구성해 조각 예술의 변화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는 원목, 철재 등의 물성을 이용해 묵직한 감성과 유기적 형태의 조화를 표현하는 이재효 작가와 3D프린팅 및 디지털 조각 기법을 활용해 경쾌하고 유동적인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조형세계를 제시하는 강재원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도예가 강경연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흙과 자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_1588-7890 / 편집실

- 1 강경연_보이지 않는(Blue Woman UNSEEN),
Ceramics, Stainless steel mesh, Wire, 5444×5682×350(h)cm, 2021
- 2 채성필_물의 초상(Portrait d'eau), Natural pigment on canvas, 162×130, 2024
- 3 유하연_How to live-Friends, Oil on canvas, 60.9×90.9cm, 2024
- 4 이기성_Kalpa, Mixed media on canvas, 130×130cm, 2024



시네마 & 사운드 Cinema & Sound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Introducing
The 42nd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25. 4. 24. ~ 29.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식**이 4월 24일 오후 7시에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경쟁 부문 작품 3편을 선정해 콜롬비아 영화, 프랑스 영화, 멕시코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시네마 & 사운드'로 영화의 구성 중 하나인 사운드의 예술을 깊게 들여다본다. 인물의 대사와 관객의 감상을 증폭시키는 여러 효과음, 영화음악 등 영화예술에서 중요한 사운드의 미학을 다양한 단편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폐막식**은 4월 29일 오후 7시에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진행되며 국제경쟁·한국경쟁·오퍼레이션 키노 수상 작품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개막작1) Across the Waters





개막작2) Lanawaru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전쟁 811편과 국제전쟁 121개국 4,539편으로 총 5,350편의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전쟁 20편과 국제전쟁 40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오퍼레이션 키노는 7팀을 선정해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주빈국으로는 남미 영화의 주요국인 콜롬비아가 참가한다. 현대사를 기반으로 한 극영화는 물론 역사, 도시, 농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의식이 담긴 작품으로 구성해 '콜롬비아 파노라마'와 '콜롬비아 다큐멘터리'를 진행한다.

코리아 섹션에서는 힐링 애니메이션 모음인 <새겨진 감각들>, '2021-2024. 프레임에 선과 소리'와 무속의 세계관을 다룬 작품을 엮은 '무: 욕망의 올림'을 선보인다. **AFIS 랑데부** (Rendez-vous with AFIS) 프로그램 제작 영화는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청각의 장벽을 넘어서'와 내면을 자극해 흥분을 유발하는 '사이키델릭 사이코트로픽'의 경험을 전달한다. **프리즘** 섹션은 16mm 필름을 통해 새로운 형식(박자)에 움직이는 '사운드 이미지'와 새로운 영화 미학을 탐구하는 '콜롬비아'가 펼쳐진다. **비온드** 섹션은 '3D, XR(VR), 인터랙티브'가 준비돼 고도의 기술과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특별상영**은 세계 단편영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커튼콜'과 단편영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제작 지원 프로젝트',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결성된 '공동 프로그램

특별전'이 마련된다. **시네마&사운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인디 음악과 결합한 작품까지 음악과 영화가 조화롭게 구성된 작품을 소개하는 '뮤비&무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영화 관람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BISFF', 영화 세계에 대한 진중한 대화의 시간 'BISFF 토크', 영화제작자-관계자들의 토론의 장 '라운드 테이블', 대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테레오 3D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 등 다양한 **BISFF 이벤트**가 열린다.

1980년대 부산 지역의 단편영화 제작 환경 조성과 유능한 영화 인재 발굴을 목표로 시작된 한국단편영화제는 2000년에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해 영화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미국 아카데미 공식 인증 영화제(Oscar® Qualifying Festival)로 선정돼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2021년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 스페인 고야상, 영국 아카데미(BAFTA)의 인증영화제로 선정, 2023년부터는 시네마테크 프랑스Cinémaèque Française에서 매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특별전을 개최해 전 세계에 한국 단편영화를 알리고 있다.

문의_051)742-9600 / 편집실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제68회 군록회 정기전

2025. 4. 21. ~ 27. 부산시청 제3전시실

선구적 위상을 가지며 부산의 향토 미술단체로 자리매김한 군록회(회장 서현)의 제68회 정기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묵직한 울림과 함께 찾아온다. 이번 전시에는 55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로 구성된 30호~50호 규격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끈끈한 화우정신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창작에 열정을 더하는 군록회의 정신은 부산예술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1 정수안_Energy, 30F 2 안귀녀_설악산 권금상에서, 72.7×50.0cm, 20M 3 장인영_사랑과 평화, Oil on canvas, 30F

군록회는 예술 환경이 척박한 시기인 1955년 3월 1일에 부산에서 창립했다. 60여 년 동안 수많은 작가를 성장시키며 매년 정기전 1회와 소품전 1회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단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원로, 중진, 신진 작가 50여 명이 함께 활동하며, 예술문화 융합을 이루고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부산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정숙의 「계곡의 숨소리」는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화면의 중심을 타고 흐르는 계곡의 모습이 숨겨진 자연의 정취를 발견한 듯한 탄성을 자아낸다. 문정숙 「세월」은 고요한 겨울 시골 풍경을 거대한 고목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해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세월을 전한다. 안귀녀 「설악산 권금상

에서」에서 짧고 강력하게 스쳐 지나간 반복된 붓 터치는 자연의 모습을 더 감각적으로 느끼게하고, 장인영 「사랑과 평화」의 화려한 색감은 작가만의 개성을 드러내며 원숙한 화면구성을 보인다. 추상으로 표현된 강렬하고 다채로운 에너지의 흐름은 정수안 「Energy」에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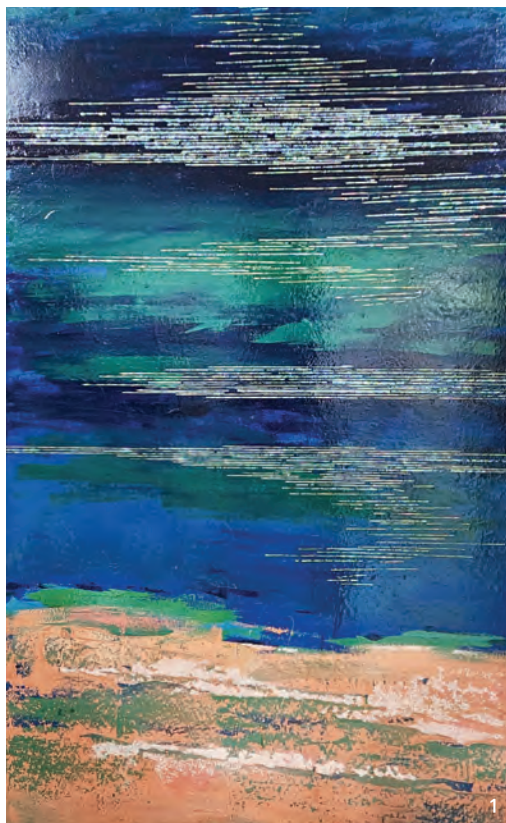
군록회는 “부산의 특수성과 세계화의 분위기에 발맞춰 앞으로 현대미술 흐름에 부합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그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전진해 나가는 발걸음에 기대를 더했다.

문의_010-6584-9278 / 편집실

부산여류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2025. 4. 14. ~ 19.
부산시청 제3전시실

새로운 변혁기를 맞은 1970년대 부산미술계에 여성작가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등장했으니, 바로 '여류 7인회'이다. 당시 부산에서 여성 미술교사로 활동하던 김덕수 박대련 장한선 이분남 김정자 심차순 이상순 7명이 뜻을 모아 1975년 5월 부산 탐미술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50여 년간 연륜을 쌓으며 '부산여류전'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51회째를 맞이했다.



- 1 이숙희_The ISLAND, 80×130cm, Ottchil Jagae on wood
2 이삼술_사람, 50호 정방, 영한사전 3 이상순_기억속에서, Acrylic on canvas, 53×65cm
4 김화주_서간문(書簡文), 100×73cm, Watercolor on hanji 5 권소연_일상의 은유, 116.8×72.2cm, Mixed media on canvas
6 문현경_보이는 그곳에서, 50×70cm, Wood cut 7 박대련_념(念), 116.0×91cm, Mixed media on canvas



2025년 부산여류전(회장 이숙희)은 '부산여류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라는 주제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평면과 입체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지난해 '부산여류전 50주년 기념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변곡점에선 부산여류회는 성별과 장르를 초월해 다양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전시는 창립 멤버 외 17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한장원 우정 이상식 이세훈 이삼술 김성호의 입체작품이 초대되어 다채로운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권소연의 「일상의 은유」는 추상으로 감각적인 색감의 표현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박대련은 강렬한 붉은 색이 화면을 지배하는 「념」을 선보이고, 박선희의 「오래된 미래」는 세밀한 기법이 주목된다. 자연의 이미지를 기호처럼 반추상으로 그린 이상순의 「기억속에서」와 옷칠과 자개로 하나의 풍경을 완성한 이숙희 「The ISLAND」가 출품된다. 부산여류회는 매년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작업의 의지를 굳건히 쌓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문의_010-2007-1584 / 편집실





봄에 펼쳐진 수채화의 향연 제47회 부산수채화협회 정기전

2025. 4. 14. ~ 19. 부산시청 제1·2전시실

지역 수채화 발전을 견인해 온 부산수채화협회(회장 조귀선)의 47번째 정기전이 가벼운 봄바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퍼트리며 부산시청 제1·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협회 회원 56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진행되며, 각각의 개성으로 다양한 기법과 실험적인 시도를 펼친 풍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1 이종원_영천 금호강 자전거길에서, 20호

2 박종환_산하, 20호

3 조귀선_자연이미지 20호

4 임종욱_청도-삼죽대, 20호



부산수채화협회는 1979년 창립해 47년간 부산을 기반으로 수채화 장르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2년에는 부산, 호주, 대만, 일본, 싱가포르의 예술가들을 초대해 '아시아수채화대전'을 개최하고, 2005에는 부산수채화의 확장성을 기획한 '남부위터칼라페스티벌'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부산바다특별전'을 열었고, 전국의 우수한 작가들과 교류하며 동시대 한국수채화의 흐름을 조망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귀선 「자연이미지」의 화려한 색감과, 이종원 「영천 금호강 자전거길에서」의 찬란한 계절과, 임종

욱 「청도-삼죽대」의 맑고 푸른 인상과, 박종환 「산하」에서 전하는 동양적인 정취를 만날 수 있다.

수채화는 담백하고 청명하며 맑아 시선을 편안하게 파고드는 매력으로 '물의 그림'이라 일컫기도 한다. 물의 유연함에 기대 나아가는 붓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많은 예술가와 미술 애호가들이 수채화에 흠뻑 빠져드는 묘미 중 하나이다.

부산수채화협회 조귀선 회장은 "봄의 향연이 펼쳐진 4월에 아름다운 수채화 작품으로 가득 채워진 전시장에 들려 예술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10-8549-3939 / 편집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전통에 대한 경의 VIII - 화악 畵樂

2025. 3. 14. ~ 15.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이정엽) 기악단이 정기공연 〈전통에 대한 경의 VIII - 화악畵樂〉을 3월 14일(금)부터 이틀간 연악당에서 선보였다. 〈전통에 대한 경의〉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시도로, 2014년부터 꾸준히 이어오며 올해로 여덟 번째 공연이다. 본 공연은 조선 시대 회화의 다양한 주제와 색감을 음악으로 풀어낸 미디어아트 콘서트로 기획됐으며,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기악단·성악단)과 정가(正歌) 협연자 김윤지, 이희재가 함께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 출신 작곡가 5인(강한희, 이지영, 이창희, 최자민, 이정호)의 신작이 초연됐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소리, 우아하고 은은하게 풍기는 한국적인 정서가 특징인 강한희 작곡의 「파묵破墨」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깊이감을 음향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파묵법」이란 ‘먹을 깨뜨린다’는 뜻으로, 먹을 한 번 바른 후 덧칠하며 농담濃淡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의 구현으로 탄생한 이번 곡은 음과 음이 겹치고 스며들면서 점진적으로 형상화되고 짙고 열은 소리의 대비가 회화적 입체감으로 완성돼 소리의 층위로 정선의 진경산수眞景山水를 보여줬다.

이지영 작곡의 「연려妍麗」는 ‘어여쁘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가 혜원惠園 신윤복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다.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으로 그의 화폭에 담긴 여인들의 자태와 표정, 그 안에 가려진 마음과 이야기들을 낭만적 분위기로 풀어내 국악관현악곡으로 완성했다. 악곡의 1인칭 시점은 하늘을 나는 새(선비)로, 새봄을 맞아 만개한 꽃(여인)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을 그렸다. 3악장에서는 12가사歌詞 중 「상사별곡相思別曲」의 구절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정가正歌 김윤지가 협연했다.

이창희 작곡의 「화중풍류畫中風流」는 조선 후기 김홍도와 신윤복의 회화 속에 담긴 선비들의 풍류를 생황과 거문고의 선율로 표현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좋은 경치를 찾아다니며 자연을 즐기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특히 그 속에서 시詩·서書·금琴·주酒로 노니는 풍류가 성행했다. 그들은 자연과 흥취를 읊조리는 시를 짓고, 이를 거문고에 얹어 노래로 부르며 음악인들이 초빙되는 등 나름대로 뚜렷한 음악문화를 형성했다. 「화중풍류」는 조선 후기 회화 속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순간이 국악연주로 되살아났으며, 김홍도의 「생황 부는 소년」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최지민 작곡의 「고산구곡孤山九曲」은 「고산구곡시화도」 병풍에서 영감을 받아 율곡 이이가 은거하던 황해도 해주

석담구곡石潭九曲의 절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석담은 선적봉과 지남산의 깊숙한 계곡으로 아홉구비 풍광이 뛰어나 1575년 이이가 구곡의 이름을 붙이고,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산구곡시화도」에는 10폭의 그림을 따라 시간과 공간, 계절의 흐름이 변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각 폭마다 율곡 선생이 어린 동자와 함께 노니는 모습이 서정적 정취를 더했다. 이 곡은 병풍의 흐름에 맞춰 장단과 악상에 변화를 주며 치유와 감동에서 오는 기쁨의 정서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이정호 교수의 「폭포수 아래」는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관악합주곡인 ‘자진한잎’의 ‘수룡음水龍吟-계락界樂’의 선율을 주제로 했다. 수룡음은 ‘물을 다스리는 용의 율조림’이라는 뜻으로 가곡의 평릉, 계락, 편삭대엽의 기악 반주를 관악합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변주한 음악이다. 육채, 올림채 등의 빠른 장단과 힘 있는 선율이 폭포 아래 쏟아지는 물줄기를 연상시키며, 깊은 물 속에서 힘차게 솟구치는 용의 기백을 표현했다.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이희재 악장의 정가正歌 협연으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곡에 무게감이 한층 더해졌다.

이정엽 국립부산국악원 원장이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전통 예술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속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한만큼 겸재정선, 신윤복, 김홍도의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와 회로애락의 감정이 국악의 선율과 리듬으로 전달되어 화려한 미디어아트 영상과 함께 더욱 풍부한 감상을 자아냈다. 전통 회화와 국악이 만나 빛어낸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으며,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또 하나의 시도로 남았다.

문의_051)811-0114 / 편집실

K-art, Busan Minhwa 오uckland 특별전

- 민화의 창, 세상을 보다 -

2025. 2. 15. ~ 21. 뉴질랜드 오uckland 마이랑이 아트센터

부산민화협회(회장 강명화)는 세계에 민화를 알리는 첫 번째 기획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오uckland에 있는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K-Art 부산 민화 오uckland 특별전'을 개최했다. '민화의 창,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민화 작품 73점을 선보이고, 부산민화협회 회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오uckland교당 안정명 교무와 교민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다도 시연이 함께 펼쳐졌다.

오uckland 특별전에서는 과거로부터 전래되어 온 민화 제작 방식을 그대로 수용해 우리 정서가 담긴 전통민화를 주로 선보여 한국 고유의 생활철학과 정신문화를 소개했다. 강명화 회장은 "민화는 우리 선조들의 삶, 희망, 애환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2024년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민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민화의 아름다움을 파격적인 색감과 자유로운 구성으로 꼽았다.

관람객들이 민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민화 부채 만들기'와 '한국 전통 문양 그리기' 시간을 가지며 교민과 현지인들이 함께 참여해 복된 한해를 기원했다.

부산민화협회는 매해 정기전과 소품전을 통해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문자도'를 주제로 한 공동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이번 오uckland 특별전을 시작으로 한국 민화가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 민화 교류와 전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편집실

1 이은숙_책거리 2 오uckland특별전 오프닝 행사



1



2



이준형



시라쓰끼히로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1회 부산한일예술전시회

2025. 3. 29. ~ 4. 2.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

부산한일예술전시회는 한국과 일본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첫 번째 전시를 가진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나라가 예술로 연결된 하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19명의 작가가 참여한 사진, 수채화, 볼펜화, 퀼트, 캘리그래피, 이케바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펼쳐 보인다.

박재진의 「쇼지호의 후지」는 붉은 빛으로 뒤덮인 하늘 아래 후지산이 자리한 사진이다. 후지산 상단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 붉은 빛이 감도는 설경을 감상할 수 있고 그 아래로 자욱하게 깔린 안개가 기품을 더한다. 대지에 내려앉은 깊은 어둠과 쇼지호에 비친 빛이 발하는 후지산은 신비감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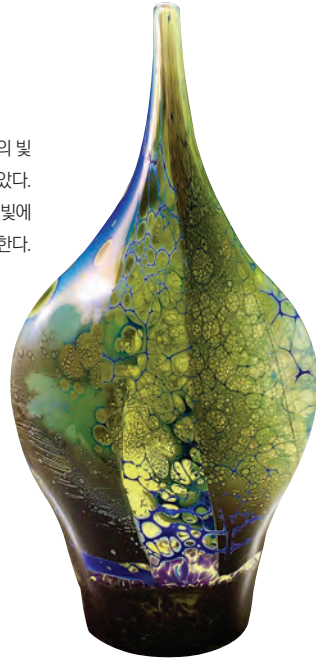
시라쓰끼히로코는 볼펜을 이용해 어둠이 짙은 밤의 숲을 그린다. 검은 잉크의 반복적 터치가 화면의 밀도를 높이고, 절묘하게 조절된 명암이 풍경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작가가 오랫동안 반복된 노동으로 일궈낸 세밀한 묘사가 주목된다.

이준형은 일상의 풍경을 동양화로 보여주는 작가이다. 일상 속 삶의 무수한 편린 중 하나를 꺼내 힘을 뺀 붓질과 종이 에 스민 색채로 편안함을 전달한다.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 되는 해다. 그간 양국은 다양한 예술문화를 통해 협력하고 교류해왔다. 제1회 부산한일예술전시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문의_010-5655-8730 / 편집실

노다 유미코(Noda Yumiko)_바다의 빛
노다 유미코는 가늘어지는 상단부와 유려한 곡선이 인상적인 화병 형태에 '바다의 빛'을 담았다.
녹색과 청색이 조화를 이루며 파도의 물거품을 연상시키는 빛에
일렁이는 무늬가 밤으로 향하는 바다를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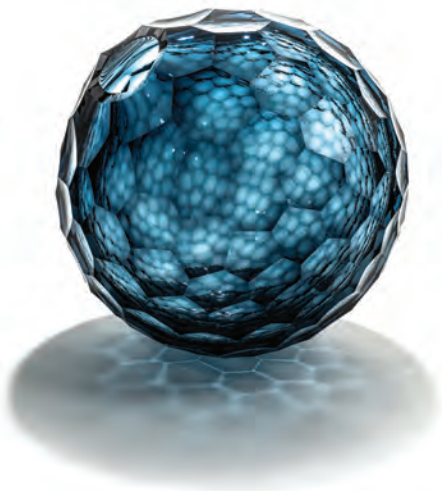


2025 특별기획전 유리:빛과 불의 연금술

2025. 4. 18. ~ 10. 26.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지난 2020년 가야 시대의 대표 고분군인 김해 대성동 76호
분에서 유리세공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문화재청은 다종다양한
재질과 색감으로 조화롭게 구성된 유리 목걸이를 보물로 지정
했다. 섬세한 유리세공기술과 조형적 완결성은 철의 왕국으로
만 알려진 가야가 1,700년 전부터 이미 유리공예가 발달했음을
증명하며 가야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새롭게 조명된 가야 역사를 바
탕으로 유리에 주목하고 지금까지 유리공예가 전통의 기반
위에 어떻게 확장하고 진화해 왔는지 '유리:빛과 불의 연금
술' 전시를 통해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유리마스
터들의 신작과 신진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 가야의 미를
재해석한 설치조형, 블로잉 워크숍 기반 결과물, 도자예술과
유리의 접목 등 총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유리'라는 물
성의 예술적 가치와 무한한 변주를 담았다.



박성훈_void_#7

유리작가 박성훈의 작품은 120여 개의 면을 넘나드는 몸체에
속은 텅 비어 있는 둥근 구의 형태이다.

작가는 유리 블로잉 작업으로 완성한 원형의 표면에 절삭과 연마를 거쳐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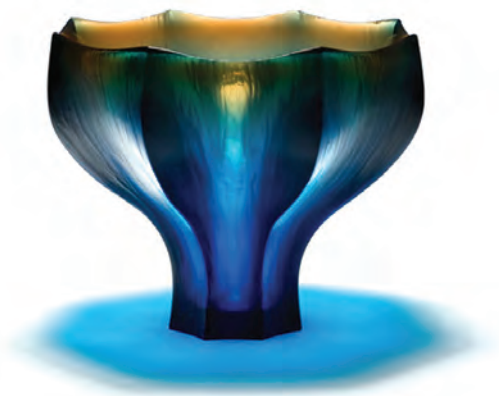
박성원_모자를 쓴 남자, H67×W42×D30cm, 2019

박성원은 블로잉과 캐스팅 기법을 함께 사용한다.

작품은 유리과 나무를 결합한 것으로, 자화상으로 나타난다.

상반되어 보이는 두 소재는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조화를 이루며

진실한 모습과 내면의 자아를 드러낸다.



김준용_Flower Graal,

20×20×16cm, Blown, Coldworked, Glass, 2014

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연상시키는 김준용의 작품은 블로잉과 연마 기법을 접목해 독특한 색채를 표현한다. 작품의 형태는 꽃잎, 씨앗, 바다 생물 등 자연에서 가져와 새벽녘과 노을 질 무렵과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 등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색으로 담아낸다.

참여작가는 김정석(한국), 김준용(한국), 곽동준(한국), 김수연(한국), 이재경(한국), 박성원(한국), 조현성(한국), 이태훈(한국), 박성훈(한국), 강민성(한국), 최상준(한국), 조은필(한국), KAKURAI HIDEAKI(일본), KENTARO YANAGI(일본), NODA YUMIKO(일본), NODA OSAMU(일본), AYAKO HATTA(일본), KAWANABE MASAKI(일본), TAKESHI FUKUNISHI(일본), Matt Eskuche(미국), Ben Edols & Kathy Elliot(호주)으로 총 21명이다.

문의_055-340-7000 / 편집실



제4회 참빛포토클럽회원전 세상의 온갖 이야기

2025. 3. 10. ~ 14.

부산수영문화원 바다갤러리 2F

‘제4회 참빛포토클럽회원전’이 부산수영문화원 바다갤러리 2층에서 열렸다. [참빛포토클럽]은 2014년 처음 창립되어 박우찬 회장과 양태환 부회장 외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정기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두 가지 출사(정기 출사, 번개 출사)를 통해 돈독해진 유대감은 이번 전시회의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번 주제는 ‘세상의 온갖 이야기’로, 14명이 모두 참여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마주한 순간(이야기)을 사진에 담아서 하나의 장소에 모았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권병진_ 화엄사의 봄

박우찬_길



2025 부산유니온발레단 창작발레

〈보은의 꽃〉

2025. 5. 9. 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유니온발레단은 효를 주제로 한 창작발레 〈보은의 꽃〉을 5월 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작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인 효를 바탕으로 ‘발레’라는 종합예술의 표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보은의 꽃〉은 2006년에 김정순의 안무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초연됐으며 올해는 김민교의 재안무 버전으로 다시 만난다.

1장 생명의 연가는 삼라만상의 운행은 생과 사 사이에서 펼쳐지며, 생명의 잉태 속에서 그 숭고함과 인연의 존귀함을 깨닫는 내용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생명에 대한 연가이며, 이를 축원하는 것으로 작품은 시작한다.

2장 인연의업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삶의 숭고함과 존귀함을 잃지 않는 과정을 보인다. 맺고 풀리는 인연 속에서 인

간의 본성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이 전개된다.

3장 보은의 꽃은 소중한 인연과 보은에 관한 내용이다. 보은은 각자의 존재를 축원하는 일이며, 생을 꽃피우는 것이다. 모든 생이 함께 축복받을 때 삶은 비로소 축제가 된다.

부산유니온발레단은 1979년 김정순발레단으로 시작해 부산 지역의 유능한 발레인들과 함께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부산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1995년 단체명을 ‘부산유니온발레단’으로 변경하고, 2024년부터는 예술감독 김정순과 단장 김민교가 젊은 예술가들과 협업해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을 개발하고 있다. 창단 초기부터 고전발레뿐만 아니라 창작발레까지 함께 선보이고 있으며 부산의 발레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문의_010-8544-1442 / 편집실

임한리 소나무

소나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로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와 기질을 담고 있으며
많은 예술가의 작품에 등장한다.
소나무의 아름다움과 조형미를 살리고
강직함과 유연성
그리고 '은근과 끈기'로 표현되는 선의 변화에 주목한다.

글 사진_여명수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말날

“장은 언제 담글라고?”

벌써 몇 번 짜다. 메주 만들기를 어르신보다 훨씬 늦게 했으니 조금 더 놓아둘 작정인데 볼 때마다 재촉 아닌 재촉을 하신다. 햇살을 반쯤 걸쳐 입은 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메주를 보면 금방이라도 해치워야 좋을 일을 하염없이 미루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셨을 것이다. ‘메주 걷어다 솔로 박박 문질러 씻어라’는 한마디 명령어로 일은 급물살을 타야 했다. 등 뒤에 버티고 계시니 엄살을 피우며 남편에게 미룰 수도 없었다. 숙련된 조교처럼 물과 소금의 비율을 맞추는 건 기본이고, 숯이며 건고추, 말려놓은 쏫나무까지 잔뜩 챙



거다 주시는 것도 모자라 항아리를 단단히 매조지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서야 의기양양 돌아서
섰던 분이다.

덕분에 내 일의 많은 부분이 얼떨결에 이루어지곤 했다. 옛 성현계서도 배우고 때때로 읽혀야
즐겁다 하셨거늘, 배우고 익힐 거를조차 없었다. 헛수로 7년. 이젠 촌부로서의 내 경력을 인정하
시는지, 교수법을 바꾸기로 하신 것인지, 두어 마디 훈수만 던져놓은 채 내가 하는 양을 지켜보
시곤 한다.

어르신은 벌써 한참 전에 장 담그기를 하셨다. 그새 노랗게 장물이 우러나고 있다고 자랑하신
다. 일에 관한 한, 뭐든 일등이 아니면 성에 차지 않으시는 성정인 것도 모르고 이사 후 한동안은
하는 일마다 뒤꿈치를 쫓아다니며 따라쟁이가 되고는 했다. 그래서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만
만찮게 있었다. 어르신은 실패도 성공으로 되돌리는 손을 가지고 계셨지만, 내 실패는 그냥 실패
로 끝이 나곤 했다. 그것도 연륜이라고, 이제는 나도 참고만 할 뿐 눈치껏 내 식 대로를 밀고 나가
는 줏대를 마련했다.

연일 영하권이 이어진 터라 며칠째 뒤란의 수도가 뽕뽕 얼어붙었다. 다용도실에서 물을 떠다 나
르자니 한두 바가지로 될 일이 아니라,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물을 푸지게 쓸 수 있어야 항아
리를 씻고 장을 담글 터라 날이 풀리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음력 정월 이내로만 담그면 된다고 하
니 아직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기도 했고.

어르신은 어제가 말날이었으며, 이웃 아우 하나가 장을 담갔다고 동네 소식을 전하신다. 애둘러
나의 게으름을 각성시키자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말날은 농협에서 배부해 준 달력에 말의 그림
이 그려진 날이다. 농사는 음력이나 이십사절기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농협은 비교
적 상세하게 그것들을 표기해서 달력을 만든다. 나 같은 어정뜨기에게도 유용한 적이 많다. 어쨌
거나 어제가 말날이었다니 나는 다음 말날에 담그면 되겠다.

처음에는 말날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는 내가 편한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는 편이지만,
도시에서도 손 없는 날로 이사를 맞추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말날 역시 그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어느 날일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육십 간지를 나날에 배열한 것 중에 오일(午日, 즉 말馬)의 날에 해당한다.
말은 덩치가 큰 데다가 탄탄한 근육질과 긴 다리를 자랑하는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동물이
다. 하여,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액운과 병마, 도깨비를 쫓아낸다는 명분으로 말 부적이거나 말뼉 등

을 수호부 삼아 지니고 다니기도 했단다.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의미에서 쇠나 나무, 또는 흙으로 빚은 말의 인형을 산 정상에 묻어두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말이 관장하는 하루에 어찌 샅된 침입자가 있으랴 싶기는 하다. ‘집안 사정은 장맛으로 안다’ 했으니 장맛이야말로 안주인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긴다’라고도 했으니 안주인의 책임 의식도 만만치 않았으리라. 말날에 담근 장은 맛이 달고 좋다느니, 뱀날에 담근 장은 흠내가 나고 티(구터기)가 생긴다느니, 민간에서 떠도는 설이 분분한 걸 보면 신중하게 택일을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종가댁 종부인 어르신이니 장 담그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오죽이나 컸으랴 싶기도 하다.

나는 한 해 걸러 한 번씩 메주를 만든다. 손바닥만 한 터에 두 해 동안 농사지은 콩을 모은, 한 말 남짓이 그 분량이다. 그러구려 태어나 두 번의 장을 담가 본 이력이 생겼다. 매사가 어르신의 살뜰한 지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간장도 된장도 호평을 받았다. 아직도 매해 서너 말씩 장을 담그는 큰손, 어르신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나 역시 대충으로 하기에는 마음이 쓰인다. 동생들을 비롯하여 다섯 집의 식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행여 망칠까 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대대로 그 집만의 장맛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 여인들의 막중한 책무였을지니, 남의 집 장을 두고도 자꾸만 헛심을 쓰시는 어르신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말날 중 상오일上午日, 즉 음력 정월의 첫 말날은 말의 기운이 가장성한 날이라 한다. 나는 놓쳤으나 이웃 아우는 최상의 택일을 한 셈이다. 말날이 최선이라면, 어르신은 차선택도 귀뜸을 해주신다. 용이나 뱀처럼 비늘 있는 동물의 날만 피하면 괜찮다는 것이다. 닭날도, 양날도, 소날도, 돼지날도 있으니 말날만 기다리느라 더는 지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어르신도 모르는 어르신의 비밀 하나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어르신은 당신께서 말날에 장을 담갔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 그러나 그날은 뱀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말날을 운운하시며 간수 빠진 소금을 찹기고 솥을 구우셨다. 해야 할 일을 두고 보지 못하는 오래된 습관을 들먹이며, 그날이 오면 일찌감치 해치우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다. 그러나 막상은 하루 전인 뱀날 오후에 장을 담그셨다는 것을 나는 말날이 되고서야 알았다. 그날 아침 커피타임에도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갑작같이 착각을 하신 모양이었다.

남편과 나는 뜨악한 표정만 주고받았다. 당신의 착오를 일깨워 드릴 수가 없었다. 얼마나 낙심을 하실까 싫어서였다. 그야말로 모르는 게 약인 경우라 무언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던 셈이다. 사고를



만회할 당신만의 처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선부르게 입을 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이 그토록 금기시하셨던 뱀날에 담근 장맛을 확인해 보고 싶은 짓궂은 호기심도 없지는 않았다.

우리 집 메주가 항아리 속 안거에 들기까지, 몇 번쯤은 더 어르신의 채근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곳곳이 다음 말날을 고수할 참이다. 운칠기삼이라 하지 않았던가. 갈고닦은 실력이 충만한 어르신이야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나는 말의 기운에 기대서라도 운발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다.

글 문경의 수필가

추상을 기록하는 구성주의 작가 사진가 **이봉재**

-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 새마을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 한국사협회원전 10결상 수상
- 부산사진문화상 수상
- 부산일보 사진동우회장 역임
- 사진집 『구성構成』 출판
- 한국해양대학 출강
- 현) 부산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이봉재 작가의 사진은 한 폭의 추상화처럼 느껴진다. 사진 속에 담긴 피사체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진의 향연이다. 리얼리티를 한 장의 추상화로 완성해 내는 이봉재 작가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점, 선, 면, 색이 어우러져 있는지 궁금해졌다.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이봉재 작가의 사진 인생 또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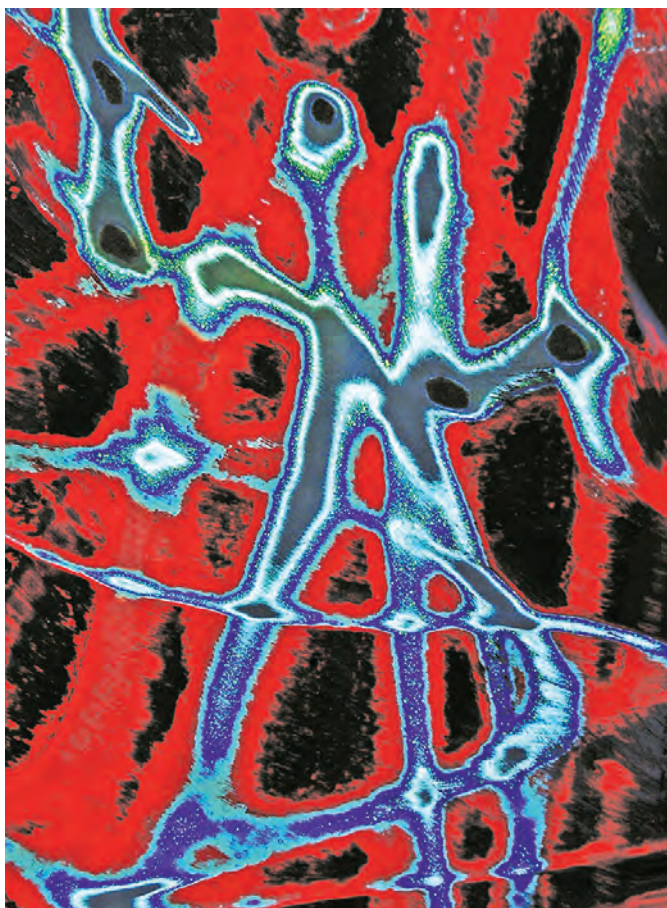
이봉재 작가는 학창 시절,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처음 사진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당시만 해도 사진관은 흔치 않은 공간이었고, 이 신비로운 장소는 그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대학(부산사범학교, 현 부산교육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중고 카메라를 장만했고, 가족과 친구들을 촬영하며 본격적으로 사진과 가까워졌다. 졸업 후 교직에 몸담으며 학습자료를 직접 촬영하는 등, 그는 사실적이고 정형화된 기록 사진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사진 세계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故이준무 교수와의 만남 이후였다. 사진 동우회를 통해 알게 된故이준무 교수는 경성대학교에서 사진 강의를 하던 인물로, 기존의 사실주의 사진과는 결이 다른, 추상적 표현을 시도하는 작가였다. 이미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사실주의 사진에 몰두했던 이봉재 작가는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은 매력을 느꼈고,故이준무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추상의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동우회 회원들이 일출을 찍는 동안, 그는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 만들어낸 패턴을 포착했다. 이후로도 나무 문짝의 패턴, 도색 중인 선박, 나무 밑동의 나이테처럼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피사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냈다. 일부에서는 그의 작품을 ‘난해하다’고 평했지만, 그것은 곧 그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난해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사

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낯설어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故이준무 교수와 이봉재 작가가 함께 추구했던 칸딘스키Kandinsky의 추상화 역시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 회화가 사실주의에서 추상주의로 발전하며 예술적 다양성을 확장했듯이 사진 또한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주관적 해석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이봉재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의 지점이다.

그는 작품의 다양성을 위해 해외까지 활동반경을 넓혔다. 교직에 몸담았기에 방학을 활용하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촬영을 이어갔다. 특히 인도는 그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소였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꾸밈없는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인도에서 그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피사체를 포착했다.



이봉재 작가는 2004년, 자신의 사진세계를 집대성한 사진집 『구성構成』을 출간했다. 故이준무 교수는 이를 두고 ‘객관적인 사실주의와 추상표현이 대조를 이루는 구성주의 사진’이라 평가했다. 스승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단순히 그 길을 답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만 82세의 나이에도 포토샵을 익히며 사진을 공부하는 등, 그는 여전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사진기법을 더욱 다양하게 만든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방향성을 잃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을 탄탄히 다진 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양성’의 발전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의 사실주의에서 출발해 추상을 향한 구성주

의로 작품세계를 확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진이 정답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사진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이봉재 작가의 신념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그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사진을 강의하기도 했다. 하나의 주제를 과제로 주면, 학생들은 저마다의 해석을 담아 다양한 사진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스승의 작품 세계를 잇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독자적인 방향을 개척하며 부산의 사진예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의 예술세계에 포착된 사진의 무궁무진한 다양성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손끝으로 빚어내는 ‘대지의 미소’

꽃예술작가 **최정선**

꽃샘바람이 물러가고 4월이 되니 온 천지가 꽃대궐이다. 여기저기서 폭죽을 터뜨리듯, 혹은 카드섹션이라도 펼치듯, 시차를 두고 피어난 꽃송이들이 갖가지 색깔로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 수선화, 벚꽃, 개나리, 목련, 진달래...파스텔 톤의 꽃들이 다투어 등불을 켜 들면, 얼어붙었던 어떤 마음인들 녹지 않으랴.

독일 시인 하이네가 ‘꽃은 대지의 미소’라고 했던가. 하이네의 말처럼 온 세상이 미소를 짓는 계절, 꽃구름 피는 4월을 맞이하며 [하나꽃중앙회] 최정선 회장을 부산예술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일 년 열두 달 ‘대지의 미소’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일까. 빨간색 스프링코트가 잘 어울리는 최 회장의 표정도 꽃처럼 화사하다.

꽃을 소재로 수십 년간 작품활동을 해오면서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지로 다니며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도 힘쎄던 최 회장의 이력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꽃을 사랑하고 꽃꽂이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꽃꽂이는 아무래도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예술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에는 꽃꽂이가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옛날에는 어찌 보면 꽃을 꽂는다는 게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처음엔 주부들이 시장 가서 꽃 몇 송이 사서 집에 꽂아 두는 걸로 만족하다가 차츰 꽃꽂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욕심에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꽃꽂이가 점점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꽃꽂이를 오래 접하다 보니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고가高價의 가구로 장식해 놓은 멋진 거실이라도 거기에 꽃 한 송이가 없으면 그 집은 죽은 집같이 느껴져요. 거기에다 생화生花 한 송이 딱 갖다 놓으면 집이 생기를 띄며 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꽃꽂이를 꼭 사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느낍니다.

꽃꽂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결혼 전에 이웃의 권유로 꽃꽂이를 잠시 배웠는데 결혼 후 그만두게 되어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면서도 가슴 한편에 미련이 남아있었는데 막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 한국전통 꽃꽂이로 유명한 [하수회]에서 다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KTX도 없던 당시에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수회에 다닌 이유는 동양 꽃꽂이의 아름다움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겨 일본까지 다니며 꽃꽂이 공부를 계속했지요. 그 결과 일본의 이케노보 이케바나 정교수 자격을 얻었고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등, 꽃꽂이에 온 열정을 불태우며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수회에서 독립하여 부산에서 [하나꽃중앙회]를 설립한 이후 많은 제자를 양성해 왔고 중등학교의 방과후 학

교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도 출강하며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이어오면서 부산꽃작가협회에서 제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꽃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꽃과 함께 사셨는데요, 독자에게 꽃꽂이의 좋은 점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전시회 준비를 위해 꽃꽂이를 할 때면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화造花를 만지면 한두 시간만 만져도 금방 피곤해지더군요. 아마 생화生花에서 나오는 기氣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생명과의 교감에서 오는 그런 좋은 기氣 때문에 꽃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꽃을 꽂을 때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제겐 꽃을 꽂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꽃을 보고 ‘아, 예쁘다!’하고 감탄하는 것, 또 꽃을 다 꽃아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곳이 바라볼 때의 성취감이나 기쁨, 이런 것들도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더구나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땐 가슴기 역할까지 하니 가족의 건강에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꽃꽂이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으니, 꽃꽂이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 집니다. 혹시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서울의 하수회에서 공부를 마치고 독립하여 하나꽃중앙회를 설립한 지 3년 만인 1995년에 국제신문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당시 제자 50여 명과 함께 제1회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의 설렘, 땀과 열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예식장 장식이나 각종 전시회 참여 등, 많은 곳에 꽃꽂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마도 제가 독립해서 처음으로 준비한 전시회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50여 년간 학원을 운영해 왔지만, 이상하게도 제 제자 중에는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보다는 3, 40년을 배우면서도 그냥 좋아하고 자기만 즐기는 제자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작가가 정성껏 꽃아놓은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면 작가도 같이 즐거운 법이지요. 저도 그것이 즐겁고요. 참, 부산꽃작가협회의 직전 회장인 제9대 이미라 회장이 제 제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람이라면 보람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우리 부산꽃작가협회가 부산예술제에 참여하여 전시회를 가졌을 때 시민들이 아주 많이 좋아해 주었던 일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할 때 최상의 작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의 제약 등, 어려움은 없는지요. 그리고 동양 꽃꽂이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요.

꽃을 꽂는 시간은 꽃꽂이의 소재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요. 꽃꽂이의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것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일이십 분 만에 꽂기도 합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나 개나리 등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전시회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다 꽃아놓고 마지막에 완성하고요, 또 꽃은 꽃망울이나 꽃의 핀 정도가 다 다르므로 그 시기에 맞추어 꽃으면 됩니다.

서양 꽃꽂이는 그릇의 사이즈와 장소에 따라 미리 틀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방식대로 꽃으면 되지만 동양 꽃꽂이는 정할 수가 없어요. 소재의 선^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야 하니까요. 선과 공간으로 여백의 아름다움을 연출해 내야 하니 정말 예술적인 건 동양 꽃꽂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서양 꽃꽂이를 먼저 배우고 동양 꽃꽂이를 배우면 힘이 듭니다만 동양 꽃꽂이를 먼저 배운 사람이 서양 꽃꽂이를 하면 아주 멋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양 꽃꽂이를 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문화센터 등을 통해 일상에서 간단하고 쉽게 꽃는 것이 유행하다 보니 요즘은 학원도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꽂이가 대중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동양 꽃꽂이의 전통을 잇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꽃꽂이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제가 올해 팔순입니다. 팔순 기념으로 개인 전시회를 할까 생각했는데 여건이 잘 안 맞네요. 그것도 안 되면 옛날 제자들 몇몇을 불러 함께 작품을 꽃아 잔치를 한번 벌여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느덧 올해 팔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꼭 꽃꽂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집에 수반을 두고 한두 송이라도 꽃아보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있을 때 분위기도 달라지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시장바구니에 꽃 한두 송이라도 사 들고 오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팔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화사하고 젊어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꽃의 기를 많이 받아서인가 봅니다. 회장님을 뵈니 저도 당장 꽃꽂이를 해야 할 것만 같네요.(웃음)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길가 꽃집의 프리지어가 싱그런 꽃망울로 유혹한다. 마음속으로 혹 들어오는 싱그러운 바람 한 자락…….

그래, 오늘 저녁엔 투명한 유리 화병에 노오란 프리지어를 담아 식탁에 올려 두어야지.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꽃꽂한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온천지 가득한 꽃의 마법에 걸려 아무에게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화창한 봄날이다.

글_조현숙 시인

이 세상에 못난 꽃은 없다
화난 꽃도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다, 이쁜 꽃

허리 굽히고
무릎도 꿇고
흙 속에 마음을 묻은
다, 이쁜 꽃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네게로 다가가다
당신은 참, 예쁜 꽃

- 나호열, 「당신에게 말 걸기」 전문

최정선 하나꽃중앙회 회장 / 일본 이케노보 이케바나 정교수 / 부산플라워 클러스트협회 부이사장 / 전)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플로리스트반 강사, 부산꽃작가협회 회장, 세계화에찬선작가협회 부이사장

No. 39

나무의 응시, 풀의 주름

송 명 화

베란다 숲이 나를 울울하다. 크고 작은 관엽식물과
풀꽃 화분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더불어 산다. 빛을
찾아 가지를 비튼 나무의 방향을 돌려주며 그 마음을
읽는다. 벅찬 짐수레를 끌 듯 내 허리가 구부러질 때
나무 그늘에서 듣는 비밀의 언어는 나를 다시 수직으로 세운다.
날마다 창밖으로 먼 금정산을 읽고, 앞창과 뒤창을 열어
아파트 숲과 시민공원의 푸르름을 점검하며 내 안의 숲을
깨운다. 내가 새잎으로 다시 연해지고, 싱싱해진 초록이 되어
금정산 오솔길에 들어서면 숲이 나일까, 내가 숲일까.

내 숲으로 emyo / 나무의 응시, 풀의 주름 /
나무의 아랫단위에 흥건한 / 풀이 영접의 시간을
여어오 / 녹은 우거진 내 숲으로 emyo

초록잎 무성한 숲의 언어에 차별은 없다. (일부)

작가노트 | 초록 이미지는 내 삶을 비추는 청동거울이다. 멀리 나는 세상에서 나는 그냥 초록이고 싶다.

글_송명화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회장, (사)부산문인협회 부이사장

RE: VIEW

음악 팬텀스타워즈 -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클래식 음악에 한 발짝 _ 김윤선

미술 박주호 작가의
'Awareness' 展 _ 권오혁

음악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 I
무라카미 하루키 _ 김재준

팬텀스타워즈 -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클래식 음악에 한 발짝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지난 3월 16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지난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풀어 주는 <팬텀스타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로 부산 출신의 청년 성악가 4인방이 펼쳐는 뜨거운 공연이 있었다. 이 공연은 부산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 서고 있는 부산예술후원회(회장 강의구)와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회장 오수연)의 공동 주최로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고급스러운 보이스로 오페라와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를 넓혀나가는 베이스바리톤 길병민과 팬텀싱어4에서 활약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리톤 이승민,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가수로 데뷔해 2022년 이탈리아 산레모 음악제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박종수, [라스페란자], [유엔젤 보이스] 등 남성 크로스오버 앙상블에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뮤지컬배우 신명근이 부산의 음악 애호가들을 향한 아낌없는 열창의 시간을 가졌다.

클래식에서 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올라운더 4인은 부산예술후원회에서 선정한 부산 출신 청년 예술가로 예술성과 관객의 취향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무대를 만들어 갈 성악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탄탄한 팬층을 두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 중이다.

뮤지컬과 영화에서 접한 다채로운 곡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영화 <어바웃타임>의 OST인 「Il Mondo」를 불러 힘차고 에너지 넘치는 앙상블로 문을 열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대표곡 「이룰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신명근의 돋보이는 연기에 더한 탄탄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바리톤 이승민은 호기 가득한 목소리로 조두남의 「뱃노래」와 팬텀싱어4에서 보인 위트와 표현력으로 로시니G. Rossini의 오페라 <이탈리아의 터키인Il turco in Italia> 중 「Se ho da dirla avrei molto piacere」로 그 실력을 보여 줬다. 이어서 테너 박종수의 무대. 그는 70년 넘는 유럽의 최고 페스티벌인 산레모 뮤직 페스티벌에서 3,000대 1의 경쟁에서 우승을 거머쥔 아시안 최초 뉴텔런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우승 트로피를 수여 받으며 '마치 이탈리아 전설의 테너 베냐미노 질리(Beniamino Gigli, 1890~1957)를 보는 것 같았다'는 찬사를 받을 만큼 감미롭고 감수성 있는 소리로 「로마의 기타Chitarra Romana」와 「You raise me up」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명품 보이스의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 객석의 환호와 함께 등장해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를 온몸에 담아 부른 후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 「Toréador song」으로 역시 성악가의 진면모를 보여 줬다.

이들과 함께 연주를 맡은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United Korea Orchestra]의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분위기를 환기한 후 이어진 2부에서는 더욱 자유롭고 매력을 뽐내내는 시간이



더해졌다. 신명근이 부른 두 곡의 가요와 바리톤 이승민의 영화 <여인의 향기> 속 탱고 음악인 「Por una cabeza」에 이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Largo Al Factotum, 테너 박종수의 뮤지컬 <파리의 노트르담>Notre Dame de Paris에서 그랭구아르의 넘버 「대성당들의 시대」Le Temps des Cathedrales」는 상승하며 반복하는 후렴구에서 테너로서 진가를 그대로 드러내 큰 감동을 안겨줬다.

다시 길병민의 무대로 「Granada」와 「My Way」로 특유의 흡인력과 대체 불가능의 장악력으로 청중의 이목을 한껏 집중시킨 후 황홀한 양상블로 진심 어린 열정 가득한 팬텀스타워즈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공연은 팬텀스타 4인방의 깔끔한 무대 매너와 개성 넘치고 유난히 빛나는 카리스마에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와 지휘봉을 잡은 다니엘 S김과의 완벽한 호흡도 열띤 무대에 완성도를 높여 주었다.

봄을 재촉하는 우중에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운 <팬텀스타워즈-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는 부산 클래식 문화 저변 확대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부산 출신 음악가들이 후배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지역예술가들도 더욱더 큰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 출범한 부산예술후원회는 2023년 '부산 청년 작가 해외탐방'과 2024년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in 김해공항', 청년 예술인 후원을 위한 'fun_인연'전을 개최했으며, 이번 <팬텀스타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를 통해 부산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청년 예술인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

또한 <팬텀스타워즈>를 통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각종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 젊은 성악가들이 팝과 클래식 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장르로 맹활약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중 매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음악가들의 사회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팝페라계에서 손꼽는 임형주를 비롯한 임태경, 카이 등과 같은 크로스오버 가수들 모두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클래식이 융성했던 바로크나 고전주의 시대는 음악가를 전적으로 후원하는 궁정이 있어 그들 기호에 맞는 음악만으로 살 수 있었다면 현대 사회는 정통 클래식은 물론이고 대중음악까지 품어 가는 시대이다.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에 흥미를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은 청중을 향해 시선을 맞춘 그들 음악의 뿌리인 클래식 음악에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박주호 작가의 ‘Awareness’ 展

글 권오혁 아티멘션 대표

밥을 그리는 박주호 작가가 카린갤러리¹⁾에서 전시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Awareness’를 주제로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박주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소식에 궁금함이 앞섰다.

작가는 밥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본다고 한다. 그가 그린 수북이 담긴 고봉밥은 어쩌면 그 열기마저 온전히 전달되는 듯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를 알아차리듯 상호 간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작가의 고봉밥 그림이다. 작가는 일차원적인 고봉밥에서 벗어나 대상과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어머니께서 내어준 상차림의 밥에서 정성과 사랑을 보았다. 밥이라는 소재를 통해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마치 수행하듯 반복적으로 그리는 행위에 집중했다고 한다.

작가는 쌀이 아니라 밥을 그린다. ‘밥’은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는 흔히 ‘밥을 한다’ ‘밥을 짓는다’라고 말한다. 만약에 ‘쌀을 한다’ ‘쌀을 짓는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것이다. 이는 ‘밥’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행동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리를 한다, 운동을 한다, 독서를 한다’ 등과 같이 그 단어 안에 인간의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쌀을 한다, 책을 한다’는 앞선 단어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이와 유사하게 ‘밥을 짓는다’는 ‘건물을 짓는다’와

같이 인간이 몸을 눌러 움직이는 동작인 ‘짓’과 함께 사용된다. 이처럼 작가가 그린 밥 그림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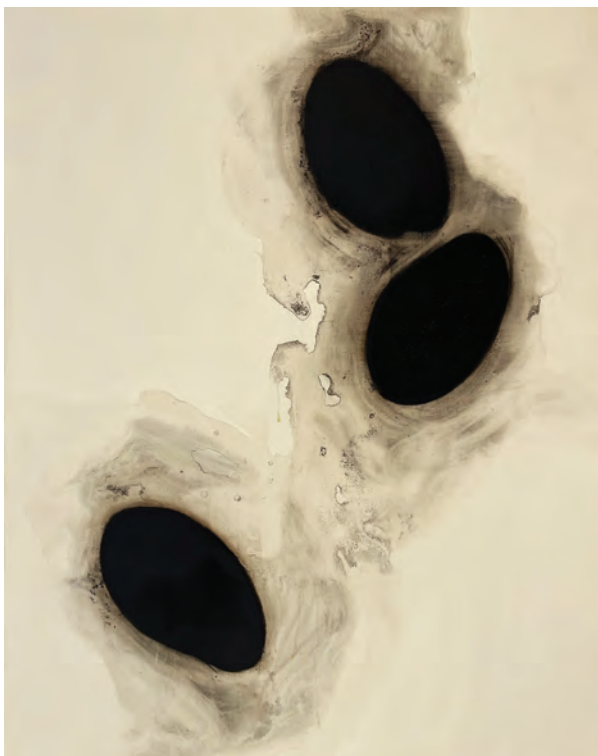
이번에 전시된 신작은 이전 작품에는 없던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리얼리티를 추구했던 작가의 그림과는 차이를 둔 추상이 등장했다. 이러한 표현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색채만으로 작가의 심연을 드러내 보고자 시도한 작업이다. 작품은 회고 둥근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강렬한 색상을 통해 작가의 내적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응시²⁾해 보았다. 밥알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보았을까? 그 밥알이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성분을 분석했을까? 검은 색으로 칠해진 밥알 주변으로 열게 변진 듯한 표현은 마치 그 한 알이 내뿜고 있는 에너지 같아 보였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강력한 에너지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다. 어쩌면 아직 식지 않은 밥의 온기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밥알의 온기는 마음의 온기가 되어 그 파스함을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추상적인 표현으로의 시도는 참으로 다양했다. 대상을 뜯어보기도 했고, 단순화 시켜보기도 했으며 확대, 축소하는 등 마치 일기를 쓰듯 대상이 작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씩 하나씩 그림으로써 내려갔다. 그로 인해 밥과 동행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마음 Starting mind
181.8×130.3, Oil on canvas, 2023



살 The flesh
90.9×72.7, Oil on canvas, 2024

모습을 마침내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유독 밥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박주호 작가의 밥그릇은 빈 도자기를 그리는 어떤 작가와는 사뭇 달랐다. 밥그릇에서 느껴지는 표면적 질감은 마치 물감으로 도자를 빚는 것 같았다. 그릇의 추상적 표현, 색깔, 밥을 담아내는 그릇은 인생을 담아내는 작가의 스토리보드인 것이다. 작가는 마음의 그릇을 그리고 그 위에 그가 그린 밥을 담았다. 그렇게 추상으로의 접근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밥심³⁾’이라는 말이 있다. 밥은 삶의 에너지이자 평생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테라코타 작품이 있었다. 인체 테라코타 뒤로, 길게 줄로 연결된 한 알의 밥알은 그간 작가가 밥과 함께해 온 인생길을 표현한 것 같았다. 그 작품은 마치 나의 존재를 향한 인생

길을 직면해 보임과 동시에 한국인의 정체성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무제」라는 제목의 손 그림이 있었다. 수줍은 듯 전시된 손 그림은 밥을 짓는 손 같아 보였다. 밥을 짓는 어머니의 손일까. 나는 그 손이 밥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의 손 같아 보였다. 작가는 밥을 짓듯 그림을 그린다. 손을 물에 담고고 쌀을 씻듯 밥을 한다. 그렇게 완성된 밥은 어머니의 밥에서 벗어나 비로소 작가의 밥이 되어 관객에게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공간을 만들어 보였다.

1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154 카린

2 시선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봄

3 밥을 먹고 내는 힘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I

무라카미 하루키

글_김재준 피아니스트

오랜 시간 동안 음악과 문학은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해 왔습니다. 베토벤은 실러의 시 「환희에 붙임An die Freude」에 곡을 붙여 「9번 교향곡」을 완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문학에서 빌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슈트라우스는 위대한 문학작품을 한편의 음악적 시, 교향시로 작곡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사랑한 작곡가 베르디는 『맥베스』와 『오텔로』를 오페라 작품으로 만들었고 대문호 톨스토이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를 소재로 동명의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머나먼 북유럽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아시아 여성 으로서는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책 판매량이 증가하고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문학계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대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노르웨이 숲』(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1Q84』 등 문학작품에 관심이 있거나 서점을 자주 들르는 분이라면 한 번쯤 표지와 제목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애독자층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작품이 출판

될 때마다 인기도서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I-무라카미 하루키〉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를 「Cello Suite No. 1 in G Major, Prelude」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시작합니다. 이 곡은 하루키의 소설 『양을 쫓는 모험』의 한 장면에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일본 음지를 좌우하는 세력의 수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커다란 차에 탑승합니다. 차 안은 서로 아무 말 없는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하고 라디오에서는 바흐의 곡이 흘러나옵니다. 하루키는 조용하고 고요한 바흐의 음악을 통해 작품 속 긴장감을 이완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글 쓰는 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음악에서 배웠거든요.” -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터뷰 중

하루키는 작품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법을 음악에서 배웠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들의 조합, 문장의 배치, 문단, 그리고 톤의 조합에 의해 글의 리듬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할 만큼 음악을 통해 그의 어법을 만들어 가는 작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랑하는 음반을 모아 소개한 『오래

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하루키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486장의 아날로그 레코드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시선을 따라 소개하는 에세이로, 이번 공연에서 두 번째 곡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구노의 「아베마리아」는 Ave Maria 바흐 평균율 1번 프렐류드에 선율을 붙여 만든 성악곡이지만 아티스타의 다양한 악기와 편성으로 연주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의 캐릭터를, 음악을 통해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소설 『스푸트니크 연인』의 여주인공 이름은 ‘스미레’입니다. 제비꽃의 일본말이 바로 스미레(すみれ)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어머니가 모차르트의 가곡 제비꽃을 너무 사랑해 딸의 이름을 스미레로 지었다고 하루키는 기술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제비꽃(Das Veilchen)」은 모차르트가 유일하게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으로 한 소녀를 사랑하지만 그 소녀의 발에 밟혀 버린 제비꽃의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곡입니다. 소설 속 스미레는 17살 연상의 여자인 뮤를 사랑하고 있으며 스미레의 이뤄지지 못한 사랑의 모습이 가곡 속 제비꽃과 사뭇 닮아있습니다.

“그녀는 기타용으로 편곡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드뷔시의 「월광」을 정성스럽고 이쁘게 쳤다” - 노르웨이의 숲 中

두 곡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먼저 출판된 『노르웨이의 숲』의 여주인공의 장례식 장면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과 청춘들의 혼란한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르웨이의 숲』은 하루키의 대표작이자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입니



다. 이 작품의 키워드는 바로 ‘상실’입니다. 작품은 여주인공 나오키의 언니와 소꿉친구의 죽음, 나오키를 짝사랑한 와타나베,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레이코 여사, 등장인물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을 통해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드뷔시와 라벨의 이야기, 이어지는 또 다른 소설 속 「피가로의 결혼 서곡」, 「세헤라자데」, 「브람스 피아노 콰르텟」의 이야기가 공연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아티스타의 첫 번째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I-무라카미 하루키>는 4월 29일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5 을숙도 문화회관 기획 공연 ‘예술 공감’에서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써 내려진 우아한 문학, 문학의 향기를 가득 담은 품격있는 음악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통해 느껴보는 4월의 어떤 날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인들이 모인 아티스타(대표 김재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험 무대와 장르 융합으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는 올 하반기 두 번째 시리즈(『마지막 칸타타』 추리 소설)로 관객들에게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건축과 서예 X

오류에서 고증으로 : 현판 변천사 부산진성



역사 고증 : 부산진지성에서 부산진성으로

문화유산의 명칭이 이토록 오랫동안 오류로 점철되어 있었던 사례는 드물다.

부산진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때 '부산진지성' 또는 '자성대'로 불렸던 이 성은 문루와 장대의 명칭까지도 고증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본래 부산진성은 부산진수군첨절제사의 군영진성으로 임진왜란 전에는 부산 동구 좌천동 일신기독병원 앞 지금의 정공단 위치가 성의 남문 자리였다.

성의 형태는 평산성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공단 안의 정발 장군 비석 비움에도 '이곳이 옛 부산진성의 남문 자리였다'는 의미의 '지즉고진남문야' 址則古鎮南門也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임진왜란 중 부산진성이 함락되면서 기존 성곽의 성돌은 좌천동 산마루 부근으로 옮겨져 일본식 범천 증산성 축조에 사용되었다.

부산진과 만포진은 일본과 만주족의 침입을 수호하는 관문으로

'변지이력' 邊地履歷이라 하여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군진이었다.

또한 부산진첨사는 두모포, 감포, 해운포, 칠포, 포이포, 조포, 서생포, 다대포, 염포, 축산포 등 10여 개소의 수군 만호영을 관할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진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일본식 성곽인 통칭 자성대 주변에 새로운 부산진성을 수축하였다. 이때 새로 축조된 성이 본래의 부산진성을 계승하였으나, 범천 증산성을 모성 母城으로 여기면서 부산진성 내의 일본식 성은 자성 子城이 되어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자성대로 부르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경상남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 마련 이후 1972년 이 성이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 자성대라는 명칭에 초점을 맞춘 결과, 원래의 부산진 고성 古城이 사라졌음에도 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산진성의 지성 支城으로 지정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2019년에서야 복천박물관장을 역임한 나동욱의 연구와 발의로 비로소 명칭의 오류가 바로잡혔으며, 2020년 1월 문화유산지정명칭이 '부산진지성'에서 '부산진성'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현판 고증 1 : 1974년 부산진성 정화사업과 청남 오제봉 서예

부산진성 내에는 과거 많은 현판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임진왜란 이후 성을 복구하면서 사대문과 관아를 정비하여 부산진첨사영으로 사용했는데, 진동문(동문)·금루관(서문)·종남문(남문)·구장루(북문)가 있었고 성안에는 객사인 공진관(拱辰館)과 폐문루(閉門樓)인 제남루(濟南樓), 동헌인 검소루(劍嘯樓), 군기소인 청상루(淸霜樓) 등 15동의 건물과 성 밖의 건축물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1974년 7월부터 1975년 2월까지 진행된 정화작업 때는 이 가운데 일부만을 복원하였다.

이 때 동문과 장대를 신축하고 동문을 건춘문(建春門), 서문을 금루관(金壘關), 정상부 장대는 진남대(鎭南臺)라 이름 붙이고 현판을 달았다. 여기서부터 문루 명칭의 오류와 현판 수난사가 시작된다. 특히 동문은 경복궁 동문 이름인 건춘문(建春門)을 인용하였고, 자성대 장대 현판은 남한산성에 있는 수어청의 장대 이름인 진남대(鎭南臺)의 이름을 차용해 버린 것이다. 사실 1963년 발간된 이완영(李完永)의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소고」(『항도부산』 제2호)라는 논문은 부산진성 문루 이름의 유래와 건물 명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 직원의 고증 미숙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다행히 서문은 옛날 사진이 남아 있어 금루관(金壘關)이란 옛 명칭을 따랐다. 부산진성은 주 출입구가 서문이다. 금루관은 '강철같은 보루이자 성채'라는 뜻이다. 서문 좌우에는 '이곳은 남쪽 변방에 목구멍 같은 경계이며, 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처럼 중요한 곳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남요인후(南嶽咽喉) 서문쇄약(西門鎖鑰)」이 새겨진 돌기둥이 각각 서 있다.

동문, 서문, 장대. 이 세 개의 현판은 1974년 정화사업을 계기로 부산 서단(書團)의 중추인물인 청남(靑南) 오제봉(吳濟峰)(1908-1991)이 모두 썼다. 청남 오제봉은 행정당국에서 결정한 명칭을 그대로 따라 현판을 제작했다. 그는 동일시기에 의뢰받았을 것이나 현판마다 서체 차이를 두어 강건함, 유려함, 생동감 등을 각각 반영함으로써 각 문루마다의 다채로움을 살려내고 있다.



George N. Curzon(1859-1925)의 『Problems of the Far East』(1896년, p.91)
[영축문화재보존 자료 제공]



건춘문_청남 오제봉 서예(1974)



금루관_청남 오제봉 서예(1974)



진남대_청남 오제봉 서예(1974)



진동문_청계 안정환(2022)



승가정_청계 안정환(2022)



금루관_목불 정민조(2024)
[영축문화재보존 사진 제공]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한글 전용이 확산한 시기였는지, 세 현판 모두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집필 방식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좌횡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현판 고증 2: 청계 안정환과 목불 정민조가 새롭게 전각

부산진성으로 명칭 변경과 고증이 완료된 후, 2022년 동구청은 동문과 장대 현판을 대상으로 1차 현판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건춘문이던 동문은 진동문으로, 진남대였던 장대 현판은 승가정^{勝嘉亭}으로 수정하여 청계 안정환이 글씨와 각자를 담당했다. 그는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전각장이자 청사 안광석의 후계자로 정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현판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특히 1842년 첨사 이희봉^{李熙鳳}이 부산진성 내에 육우정을 짓고 승가정이라 이름 지었다 하는데 승가^{勝嘉}는 '경치가 매우 뛰어난 정자'란 의미이다. 2024년에는 2차 현판 교체 작업에 착수하여 서문 금루관 현판은 목불 정민조가 새롭게 제작하였다. 그는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동장각장으로 석불 정기호의 후예이다. 금루관 현판은 전하는 옛 사진 속 서체를 근거 삼아 집자하여 전각하였다.

부산진성은 문화유산의 명칭에서부터 문투와 현판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철저한 고증과 논의를 거쳐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는 역사가 단순히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성장하는 미래 유산임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돌이켜보면 부산진성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곽 복원이나 인식 오류의 정정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여정인 셈이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부산시민의 꿈, 가덕신공항에 멋진 이름 붙여졌으면

부산 사람들에게겐 '가덕신공항'은 '그냥 새로 지어지는 공항'이 아닙니다. '꿈'이자 '눈물'입니다. '의지와 끈기'이며 '감격'이고 '자부심'입니다. 단순히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의 바다 위에 짓는 '해상 신공항'이 아닌란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국제공항은 시작부터 완공까지 과정에 있어서 갖가지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공항의 특성상 워낙 넓은 공항 부지가 필요하고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자연조건을 잘 갖춘 공항 부지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지어지면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 영원히 운영되어야 하는 공항, 즉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천혜의 부지'여야 합니다. 슬한 난관을 딛고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공항 건설 과정에서 보상과 환경문제 등 수천수만 가지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이 지구상에서 가덕신공항만큼 '짓자'나 '말자'나를 놓고 수십 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등 유별난 사연을 지닌 공항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당장 남부권에도 반듯한 신공항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꿈공 막혀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체제'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다면 가덕신공항은 벌써 개항되어서 운영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하나만 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이 그토록 외친 '부

산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김해국제공항의 인프라 부족과 안전 문제 등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을 때인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45분께 중국 국제항공 Air China 소속 CCA 129편의 추락 사고 발생을 계기로 신공항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승객 166명(승무원 11명 포함)을 태우고 출발한 CCA 129편은 시속 17노트의 강풍(남풍)과 짙은 안개속에서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의 실수로 CCA 129편은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에서 4.6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편 돛대산(해발 380m) 중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는 129명이 죽고 37명이 다치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기자 경력 9년 차이던 필자도 동료들과 사고 현장에 긴급 투입되어 돛대산을 혈떡이며 취재 경쟁을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적 항공사가 일으킨 사고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김해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형 참사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뒤에야 대체 공항을 적극 고려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보여주었다고나 할까요.

그럼 가덕신공항 추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정부와 부산시가 신공항 후보지를 고르고 있었는데, 부산 가덕도와 경남 창원 대산, 부산 명지 등 3곳이 물망에 올라 있었습니다. 바다를 메워야 하는 가덕도



는 당시 기술로는 부적합한 부지로 판단되었고, 명지지역은 공군이 제일 선호했지만 부산시가 반대하는 바람에 정부 복안은 대안이 초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CCA 129편의 뜻대산 충돌 참사 이후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이 총궐기하는 태세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내 전역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로 뒤덮일 지경이었으니까요. 2006년 11월 부산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하자 대구, 경북, 경남, 밀양 등 4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게 되었고 부산시도 동참을 결정합니다. 시민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부산시민에게 가덕신공항에 대한 '열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취임하자마자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서 경북권과 경남권의 지자체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가세, 한 치 양보 없는 유치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고, 2011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공약 번복에 대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영남권 신공항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신공항 건설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2014년 8월에는 신공항 건설 수요조사 용역

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까지 내리면서 객관적인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뢰를 받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 최종안은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나오면서 또 한 번 가덕신공항 건설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김해신공항'으로 명명하고 발표한 김해공항의 확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ADPi의 보고서를 토대로 밀양이나 가덕도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비, 접근성, 사회적 비용, 그리고 건설비 측면에서 밀양이나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죠. 김해신공항은 활주로 길이 3,200m로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며 장거리 노선 개항에도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2017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착공, 그리고 2026년 김해신공항이 개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해신공항은 총면적 965만㎡에 3본의 활주로 시설을 도입하여 연간 29만 9천 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내선 터미널 1,200만 명, 국제선 터미널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0일,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2018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이 공개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덕신공항은 완전히 사라지고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또 일어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을 민주당

이 석권한 데 이어 2019년 4월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3개 시도는 다시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불가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선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 공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마련한 데 이어 TK 지자체장들의 반대 속에 2020년 12월 17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도 다음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부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법 통과를 계기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정당 후보가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한 뒤 대통령이 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뒤집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목이 터지라고 외친 부산시민들은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민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꿈’이자 ‘눈물’이고 ‘의지’였으며, ‘감격’이자 ‘자부심’인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

단법’이 제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특수법인)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2024년 5월 13일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인 이윤상⁽⁵⁷⁾ 씨가 공단의 초대 이사를 맡았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에 사무실을 둔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 ▲공항 건설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조사 ▲주요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 건설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24년 5월 31일 공단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2024년 7월 12일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가 났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2027년까지의 주거래은행(BNK부산은행)이 선정되고, 2025년 2월 3일에는 2027년까지의 건설자문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한국공항공사 대신 인천국제공항의 운영 업무를 맡은 것처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개항 이후 가덕도 신공항의 운영을 맡을 공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과 해상에 지어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총사업비 13조 4,913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착공한 뒤 2029년 12월에 공사 중 개항하고, 2030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단이 발표한 사업개요를 보면 가덕도 일원 666만 9천㎡에 3,500m×45m짜리 활주로 1본, 평행유도로 2개-고속탈출유도로 6개-직각유도로 4개, 계류장(1,006,431㎡), 여객터미널(206,585㎡), 화물터미널(17,200㎡), 주차장(11,024대), 진입도로(연장9.3km), 접근철도(16.5km), 항행 안전시설(적용시설 기준 CAT-III) 등을 짓습니다. 전체 계류장은 총 66대 주기 규모로 지어진 뒤 73대까지 확장됩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여객과 물류의 복합 쿼트로프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객)항공기+열차+여객선+UAM(도심항공교통·도시 과밀화로 인한 지상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공 기반 도심 교통체계) 등을 아우르는 (물류) 공항+항만+철도+도로를 통한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Sea & Air 중심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경제권을 강화하고, BIM(3D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모든 구성 요소를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는 기술),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스마트 공항 건설 및 운영, 가덕도의 해양 생태·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을 비롯한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을 포함해 심지어 호남권까지 아우르는 지역민들의 열원 속에 지어지는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24시간 체제의 '명문 국제공항'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종도 일원의 해안 개발 위에 들어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확장 및 운영기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초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4개에다 제5 활주로 증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지표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문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1994년 9월 개항한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도 가덕신공항 입장에서는 건설 등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간사이국제공항의 경우 수심 20m 해저의 연약 지반 위에 인공섬을 건설, 그 위에 공항이 지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지반 침하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공항 부지 일부를 조성해야 하는 가덕신공항 입장에서도 간사이국제공항의 건설 후 지반 침하 대책 등 사후 관리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간사이국제공항 지반공사를 할 때 모래 기둥을 지반 깊숙이 박

아 침하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샌드 드레인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1, 2기 공사를 통틀어 직경 40m 길이 20m짜리 모래 기둥 220만 개를 해저에 설치, 파이프 역할을 하는 모래 기둥을 통해 물이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간사이국제공항은 매립공사 후 6년 동안 무려 11m나 침하했고, 지금도 연간 6cm 수준의 침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수역을 매립하는 가덕신공항 역시 건설 과정과 개항 이후에 지반 침하가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공항엔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멋진 공항 이름이 붙여져야 합니다. 영종도에 지어졌지만 '영종도 국제공항'이 아닌 '인천'이라는 도시명을 붙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불리듯이, 따라서 가덕신공항의 명칭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부산'을 따서 '부산국제공항' 또는 '부산가덕신공항'으로 하든지, 역사적인 인물인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따서 '부산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명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공항 중에서는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 출신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파리 샤를 드골 공항(프랑스)'이 있고, 미국의 변영과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미국)'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왜적의 수륙병진 전략을 파탄시켜 임진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입니다. 특히 가덕도 앞바다가 부산대첩의 승전지인 점을 감안할 때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명명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이름을 지을 때 발칙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공항 이름은 '이순신공항'으로 하고 공항 청사 모양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인 '거북선 모양'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발칙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멋진 이름'이 붙여진 가덕신공항과 신공항 청사를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역사를 넘어, 문화가 되다

문화유산 보존·복원 이야기

때로는 사물이 온몸으로 말하는 기록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사실적
일 수 있다

우리는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AI까지 합세해 인간을 대신해 글을 쓰고 사유를 기록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힘’이 반드시 사실과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은 때때로 사실을 왜곡하기도 또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할 수도 있다. 나는 이를 종종 ‘기록의 편향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유는 기록하는 사람의 시선과 취향, 그리고 시대 흐름이 반영되기 때문이며, 기록의 양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때 편향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기록자가 좋게 기록하면 좋은 것이 되고 부정적으로 기록하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어, 기록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은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다. 흔히 문자로 남긴 기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물이 온몸으로 말하는 기록이야말로 인간이 남긴 기록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일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에 적힌 단 몇 줄의 백자 항아리 설명보다 비록 깨지고 뭉개졌을지언정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요리조리 살펴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도자기가 기록물로서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연유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체가 있는 유물을 더 많이 접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시간에 의해 흩어진 과거의 흔적을 되찾고 사라진 가



도자기 복원 작업

치를 탐구하며 가능한 한 온전한 형태로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특히 역사학자, 고고학자, 문화유산 보존·복원 연구자들은 더욱 많은 기록이 남아 있기를 절실히 소망한다. 이들은 기록을 토대로 연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기 때문에 기록이 많을수록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사실 모든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파손되고 훼손된 유물, 무관심과 부주의 속에서 사라지는(진) 문화유산을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지켜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프랑스 생드니 성당의 복원 현장. 프랑스의 고고학 복원 현장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
Fouille du massif occidental de la basilique de Saint-Denis (Seine-Saint-Denis), intérieur, vaisseau central, deuxième travée, fouille des différentes structures, mars 2023.
Responsable d'opération : Ivan Lafarge, Bureau du patrimoine archéologique de Département de la Seine-Saint-Denis. © Emmanuelle Collado, Inrap

역사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유추하며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통해 실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고 미래로 계승하는 일이다.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잔영이 아닌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의 흐름 속에서 시공간을 넘나들며 연결점들을 만들어간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되새기며, 우리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

우리가 '문화유산'이라 부르는 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과거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 의례에 쓰인 물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만들어 사용하던 것들이 모두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된다. 어릴 적 손에서 놓지 않던 장난감, 어머니가 아끼던 화병과 찻잔, 할머니와 할아버지 덕의 자개 옷장 그리고 그 안에 곱게 접혀 있던 손바닥만 한 꽃이 빼곡히 수놓아진 솜이불. 손때 묻은 물건들은 한 사람의 삶이 담긴 기록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이다. 기록은 다시 중첩된 세대의 이야기와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이어진다.

유산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 흙, 돌, 종이, 금속, 섬유, 가죽 등의 재료로 제작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시간'이라는 흔적, 즉 '역사성'을 간직한다.

흔히 우리는 문화유산을 역사·경제·문화적 가치나 희소성

| 열린마당

▶ 랑스 생드니 고고학 발굴터에서 나온 도토기 유물
▼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도자 유물 복원 과정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반드시 탁월한 가치가 있어야만 보존과 복원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 미술관에 전시된 유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이 축적된 물건과 개인의 삶과 얽힌 기물들 또한 각자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시간을 담은 물건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더 넓게는 한 시대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정신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손때 묻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애정을 담아 간직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되새기며, 우리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곧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유산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무관심'

앞서 설명했듯이,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



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국가 간의 교류, 예술 개념과 기술 등을 반영하는 역사적 증거이며 한 민족의 생활상과 정체성이 담긴 총체적 데이터베이스DB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고 문화의 근간을 형성해 나간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 유형문화유산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물학적 손상과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해 소멸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유기물로 구성된 동식물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거실에 걸려둔 가족사진은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랜다. 그리고 비 맞은 철은 녹슬어 붉은 흙으로 변해간다. 이처럼 지구상의 물질은 태초의 상태, 즉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사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부식

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유산의 본모습이 영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이러한 소멸 과정에 개입해 훼손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이며, '복원한다'는 가능한 훼손 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과학적 처리기술을 말한다. 문화유산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보존과 복원은 늘 같이 염두에 뒀야 할 정신이자 기술이다.

그렇다면 문화유산 보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많은 사람은 그것이 국가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전문가들이 이를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 없이는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유산 보존에 더욱 힘쓰는 나라가 있지만,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소멸을 자초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는 현재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깊게 들여다보면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빠른 산업화, 획일화된 생활 방식, 일회성 소비 문화, 역사교육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은 문화유산을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은 '무관심'이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기록이며, 이를 보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와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삶과 연결된 이야기가 완성된다.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들이 남긴 흔적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그렇

기에 우리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사란 방대한 기록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유추하며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통해 실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또한 마찬가지다. 단순히 과거의 잔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고 미래로 계승하는 일이다. 우리는 기록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글_정수희 문화재보존복원가
사진 제공_정수희, 프랑스국립고고학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s
archéologique préventives(INRAP)

정수희 도자기 문화유산 보존복원가. 파리1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보존 복원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복원연구소에서 유물 보존·복원 처리 객원연구원으로 일했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오래된 것들에 대하는 복원가로서의 태도와 공예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다.



복원된 달항아리, 한도요서경수 경기도무형문화재 시가지장
복원 정수희 사진 에스튜디오

생계 위기 내몰리는 부산예술인을 생각하다

K는 40대 일용직 노동자다. 그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당일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일당이 그의 생활비다. 학자금대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생계유지비,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예술 작업으로 빚이 급증한 그는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사실, K는 예술학박사이다. 얼마 전까지 예술가라는 명함을 내밀며 각종 활동을 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갤러리 소속 작가로 각종 아트페어에 출품하기도 했다. 그는 예술대학으로 진학하면서부터 작가로서 철학을 가지고 작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술가의 삶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예술은 그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았다.

소위 끼인세대로 분류되는 K의 청년기는 인생을 앞선 선생들을 보며 저들처럼만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과 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잣대 삼아 K를 지배했다. 하지만 사회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K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강사 자리를 잃었다. 이후 예술 관련 기관의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지원자격 미달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대학에서 일한 4년은 직장인 1년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경력 부족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예술가들이 전공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예술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3월 3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무직 박사의 비율이 '예술·인문학' 분야에서 40.1%로 최고 높게 나타났다.

H는 부산의 청년예술가다.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며 청년창업지원 등의 사회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 각종 지원금을 통해 예술을 기초로 한 사회 진출의 기반을 탄탄하게 설계했다. H는 졸업과 동시에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는 빠짐없이 지원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일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모든 청년예술가들이 그들을 위한 정책에 목을 매고 있었고, 연령, 직위, 지역 상관없이 모든 예술가와 함께 경쟁했기에 공모에 선정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H는 그의 공간을 다른 예술가들과 나누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오다 최근 예술을 포기했다. 현재 그는 예술 대신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장비 전문가로 전향해 살아가고 있다. 부산 청년 H는 조만간 부산을 떠날 계획이다.

얼마 전 보도된 국제신문(2025.2.17) '부산 예술인 연평균 소득 1,479만 원...4명 중 1명은 '수입 없음'과 부산일보(2025.2.18) '부산예술가 30% "창작만으로 생계유지"' 기사는 부산의 예술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비중이 29.3%에 불과해 많은 예술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전공 대학생 중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가 늘어나는 것과 '예술을 하기에 좋지 않은 도시'의 언급 또한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환경, 양질의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부산 문화재단의 연구보고서 『2024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

사』에 따르면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나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 활동 기회가 많을 것 같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해외로 나가 활동하기를 바라는 청년 예술인들의 탈부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 제고가 시급하다.

‘예술문화 도시’라는 수식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즉,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술문화 국가는 사회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국민 누구나 예술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갖춰졌음을 증명한다.

문화국가라 일컫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자. 벨기에의 쇼마쥐Chômage는 예술인으로 증명만 되면 공공급여라는 것을 지급한다. 한 해에 정해진 활동 증명으로 예술인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상당히 너그러운 제도이다. 기본적인 예술인 복지 덕분에 예술단체들은 정규급여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프랑스 앵테르미탕Intermittent 제도도 비슷하다. 예술가들은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일부를 보험료로 낸다. 정부는 신고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 소득을 산출하고 한해 507시간 이상 일한 예술가가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한다. 예술복지정책 ‘예술가의 집’은 매달 30유로 이하의 회비를 받고 의료, 출산, 육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의 18%를 일정 기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예술가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창작과 활동을 이어가게 하며 예술가들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예술품 또한 공공서비스의 부분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로 환원된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최악의 산불이 덮쳤다. 미술품 컬렉터 론 리블린은 그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200여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이 불에 탔고, 한점 당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앤디 워홀 작품 30여 점과 키스해링, 데이이언 허스트 등의 작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만 아니라 20세기 가장 혁신적 작곡가인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악보 컬렉션 약 10만 점이 소장된 벨몬트 컬렉션, 파블로 피카소의 명작들을 보관하고 있던 민간 미술관도 불에 타 모두 소실됐다. 우리는 화재 직후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LA가 가진 예술적 유산은 복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며, ‘LA예술 커뮤니티 산불 릴리프 펀드’를 구성해 화재로 주거지, 스튜디오, 생계를 잃은 예술가와 예술 종사자들을 지원했다. LA는 오랜 시간 예술문화 중심지로서 예술가들이 이 땅을 떠나거나 그들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상 최대 피해 기록을 남긴 LA산불의 재건 과제에서 예술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는 상황은 ‘예술의 도시’라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금 해지며,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곳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오랜 시간 예술가들은 기나긴 무명 시절을 예술을 향한 믿음과 애정으로 버티며 살아왔다. 이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글_정혜주 월간 예술부산 기자

이석래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제19대 회장 제38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수상

2. 27.(목) 오후 3시 30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대공연장



이석래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제19대 회장이 2월 27일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대공연장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38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부산)'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은 민간예술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헌신한 예술인들의 공익적 활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시상을 통해 그 뜻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이석래 시인은 2006년 『문예춘추』(시), 2008년 『부산시조』(시조)로 등단하여 부산의 문인단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 부산문인협회 고문과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로 예술문화 창달과 부산문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 『부산문인대사전』을 발간하여 전국도서관과 대학 등에 배부하였으며 6대광역시협회 및 제주도와 '전국지역문학교류전'을 펼쳐 문학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부산 문학의 발전과 화합에 이사장으로 솔선수범하며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부산사진작가협회, 센텀종합병원과 협력 MOU 체결

3. 11.(화) 센텀종합병원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와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이사장 박종호, 병원장 박남철)은 지난 3월 11일에 센텀종합병원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으로는 ▶양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 자원 공유 ▶임직원의 의료 진료 및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유지 ▶임직원 본인 및 가족의 병원 진료에 관한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며 다양한 양질의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사진작가협회 제64차 정기총회 개최

2. 15.(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는 2월 15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회원 111명이 참석하고 위임회원 94명으로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감사패는 최부길 자문위원, (주)해운대블루라인 배종진 대표(강병호 본부장 대리 수여), (주)대양기전 박명훈 대표, (주)수퍼크랙실 홍시영 대표에게 수여했다. 부산사진문화상 본상은 김양호 자문위원이 선정돼 부상 상금 200만 원이 함께 전달됐다.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여덕자, 이승호, 주성규, 최성임 회원에게 인증서가 수여됐고, 지난 1년 동안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회원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최길임, 장부봉, 성현미, 신현숙, 김명숙, 이태호, 류민형이 받았다.

2024년 경과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와 감사보고가 이어졌고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5년 행사 및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지회운영규정 개정(안) 및 문화상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정, 통과됐다.

(사)부산차문화진흥원 2025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개최

2. 20.(목) 오후 6시 서면 더스타뷔페 갤러리홀



부산차문화진흥원(회장 이미자)이 2월 20일 서면 더스타뷔페 갤러리홀에서 2025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72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감사보고에 이어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전 이사 연임의 건이 상정, 통과했다. 2025년 사업계획으로는 3월 '2025년도 동래의총 한궁다례'와 5월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6월 '제7회 송상현공 한궁다례 및 부

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자리', 10월 '제63회 부산예술제 세계음다풍속', 11월 '제21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와 상하반기 임원 연수회 및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다.



제34회 부산무용제 개최

4. 12.(토) ~ 1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 대표를 선발하는 제34회 부산무용제가 부산무용협회장(남선주) 주최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12일 개막식에는 [부산아이디발레단]과 [아트프로젝트 춤is]가 무대를 꾸민다. 13일에는 [현대무용단 자유]와 [낙차], [팟댄스프로젝트], Mnet 스테이파이터에 출연했던 대세 무용수 최호종도 함께 한다. 올해에는 [춤나래무용단], [동백아리랑예술단], [오륙도무용단모두] 등 13개 팀이 참가하며, 종목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선택 가능하다. 부산무용제에서 사유하는 몸짓의 향연을 즐겨보길 바란다.

문의 051)632-5116



시네바움 4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7일은 작곡가 김보현이 '악보 속 숨은 이야기'로, ▷14일은 영남대 명예교수 박홍규가 '내 친구 예수는 아나키스트'로, ▷21일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진재운이 '백산(白山), 미래를 향한 여정'으로, ▷28일은 영화평론가 함윤정이 '시네마 언노운 : Gavi(2024, 30min)'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감독 김민근도 참석한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가,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하이쿠 산책'도 준비돼 있다. 교대역 인근의 시네바움에서 인문학 강좌를 들어보길 추천한다.

문의 010-2774-3455



일본국제교류기금 해외순회전 SUSHI-당신이 미처 몰랐던 스시의 모든 것

4. 5.(토) ~ 17.(목)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일본의 대표 식문화인 '스시'를 테마로 한 전시회를 부산 시민공원 미로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와쇼쿠(和食) 중에서도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시는 심플하지만 아름답고, 세련된 건강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스시의 역사부터 관련 그림과 모형 등 스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한일 우호 증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문의 051)464-3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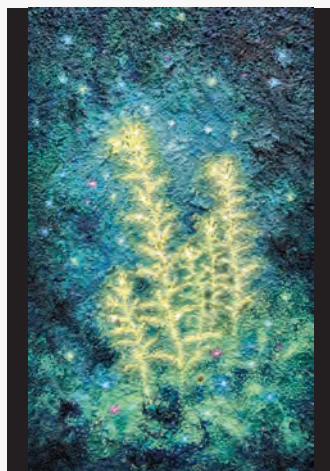


2025 사진나무숲 중간보고서 욕망 - 꼴라주

3. 27.(목) ~ 4. 6.(일)
갤러리 스페이스 포포

현대미술에서 원근적인 방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예술로 진행되었던 꼴라주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병행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사진나무숲 중간보고서의 주제는 '욕망'이다. 이 주제로 사진적 방식과 확장된 해석을 위하여 사진적인 것과 예술의 비판적 방식인 꼴라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각 작가의 생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사진과 꼴라주의 융합은 단순히 시각적 실험을 넘어, 사진 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과 가능성을 재고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작가의 과감한 주관과 상상력이 강하게 담긴 작품들을 기대해 본다.

문의 010-8558-0026



우주산수

4. 17.(목) ~ 30.(수)
복합문화예술공간MERGE?

윤은숙 작가의 개인전이 복합문화예술공간MERGE?에서 열린다. 작가는 자연을, 자기와 공명하고 어디에서나 느낄 수 없는 경외감을 주는 감동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작가의 대표작인 「빛 속에 머물다」에서는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밝게 빛나는 풀의 형상은 작가가 자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윤은숙 작가는 자연의 빛(생명)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인간이 자연을 품고 자연이 우주를 품듯이, 서로를 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윤은숙 작가의 개인전을 통해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051)527-8195



Spring Wonders

3. 15.(토) ~ 4. 20.(일)
메종 드 카린

이번 전시에서는 김지선과 김재유, 두 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봄의 감각을 담은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뿐만 아니라, 도자기, 유리, 금속 등 다양한 물성을 지닌 공예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12명의 공예 작가가 선보이는 화병과 테이블 웨어는 각기 다른 질감과 물성을 통해 봄의 빛과 온도를 담아내며, 공간에 깊이를 더한다. 회화와 공예가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봄이 가진 다채로운 결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과 기억, 감각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문의 051)731-9845



**제4회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 전시회
그곳에는**

**3. 28.(금) ~ 4. 9.(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2017년에 창립된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의 네 번째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는 사진 속의 장소가 전하는 특별한 감성을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회원들이 찍어낸 장소들은 단순한 배경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사진 속 장소에선 그곳을 거쳐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 등이 켜켜이 쌓인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다. 관객들은 각양각색의 '스토리'를 통해 자신들의 추억에 상응하는 '그곳'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의 재발견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문의 010-3721-0038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 83회 정기연주회**

**4. 18.(금)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 중인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이번에 제 83회를 맞이한다. 흥성택이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의 첫 곡으로 준비된 곡은 차이콥스키 Tchaikovsky의 「슬라브 행진곡 Marche slave」이다. 협연으로는 클래식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첼리스트 송영훈이 참여한다. 송영훈은 보케리니 Boccherini의 「첼로협주곡 Cello Concerto」를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한다. 정기연주회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따스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

문의 010-3544-7308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4. 24.(목) ~ 26(토)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나’와 ‘나’의 사이, 그리고 ‘나’와 ‘타인’의 사이에 대한 고민을 연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동규, 이태경, 김아름, 이사라, 김경수, 이한성, 최현준이 출연진으로 등장한다. 영훈(배우 이동규)은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는 다큐멘터리 기획에 흥미를 느끼고 유명 추상화가인 도정섭(배우 김경수)의 삶과 그림을 취재하려 한다. 한 번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도정섭은 영훈에게 마음을 연다. 이 공연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과 상생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010-9701-0712



어느 멋진 아침에 하창식 / 육일문화사

작가의 일곱 번째 수필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 과정을 밟은 공학자이지만, 문인으로서의 따뜻한 감수성이 느껴지는 책이다. '수시로 적은' 50편의 글들이 다섯 부로 나눠서 편집돼 있다. 1부는 신변 수필, 2부는 음악에 관한 글, 3부는 영화에 얽힌 글, 4부는 문학에 대한 글, 그리고 5부는 '예술의 융합'에 관한 글을 모았다. 특히, 수필집의 제목과 같은 3부의 「어느 멋진 아침」에는 작가가 <어느 멋진 아침>이란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과 자기 인생에 관한 회고가 드러나 있다. 작가의 인생에서 '찬란했던' 혹은 '멋진 아침'이라 표현하기 충분한 순간이 언제였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서쪽 강영환 / 책퍼냄열린시

책 속의 모든 시는 7행시이다. 시인은 언제부터가 자신의 시가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시어를 갖고 갈아낸 노력 끝에, 단 일곱 줄 안에 시상을 꼭꼭 눌러 담아냈다. 이 책은 『붉은색들』 이후 시인의 두 번째 일곱 줄 시집이다. '해가 가는 곳이 아니라/바람이 모이는 곳이다/바람은 만물이 내뿜는 숨결이다/생명이 출렁이는 서쪽은/어둠이 가는 곳 아니라/물이 일어서는 곳이다/모든 길이 모이는 광장이다(「서쪽은」 부분)'. 「서쪽은」에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상 중 일부분인 노을 지는 서쪽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 있다. 시인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정신의 영역을 7행시를 통해 보여준다.



비문전쟁 통천도명 / 북랩

도명 스님(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이 새로운 역사서를 썼다. 한국 고대사 최고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인 '광개토대왕릉비'와 한일 역사 왜곡의 도구로 늘 악용되던 '진경대사탑비'를 수년에 걸쳐 들여다본 작가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일제가 변조하고 삭제한 원래의 글자들을 복원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에 맞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주장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말 어순으로 능비를 해석한 것은 기존과 다른 신선한 시도이며, 논란이 있었던 여러 글자를 새롭게 규명했다는 점은 능비 연구의 또 다른 성과이다. 작가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정견표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저녁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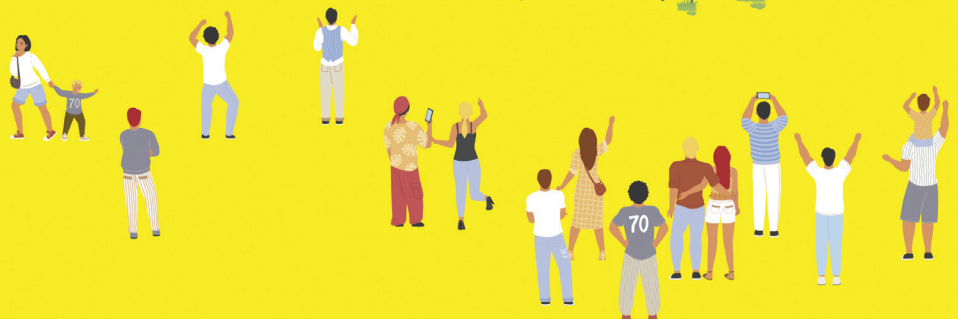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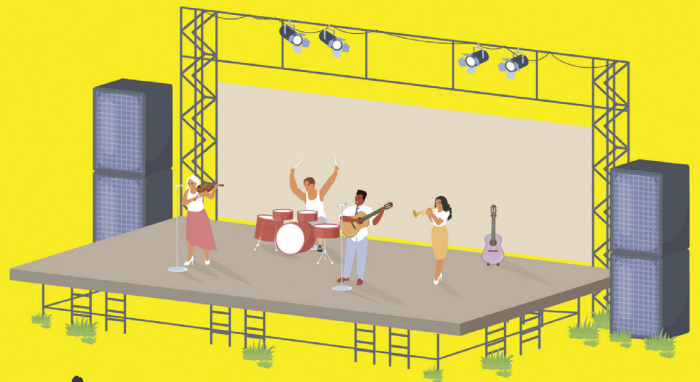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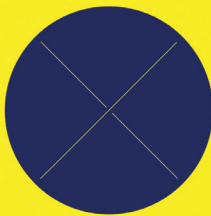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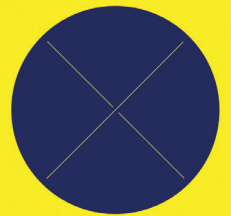
2025

걷다가
만나는
대스킹

in Madang

바 X 키

4 ~ 9월, 매주 수요일 12:00 ~ 13:00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2025 부산유니온발레단 정기공연

보은의 꽃

창작발레



2025년 5월 9일(금)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부산유니온발레단 | 1회 단체관람 2회 19시 30분 | VIP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후원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문의 010-8544-1442 / 010-4572-9991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